

2 Timothy 1-2
Tape #C2617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to second Timothy? This is the last epistle that Paul wrote. He is again in prison in Rome. It would seem that he was released from the first imprisonment and allowed a little more time of liberty to preach the Gospel. And putting together from the various epistles and from the book of Acts, it would seem that he went to Miletus and then on over to Corinth and to Troas, probably to Ephesus, and then on back where he was arrested and taken back to Rome.

이제 디모데후서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감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감금에서 그가 풀려났을 때, 그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그가 밀레도와 고린도를 거쳐 드로아까지, 아마 에베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Paul realizes that the situation is now changed in Rome. He realizes that the sentence of death is upon him. He knows that his time is very short, that he will soon be executed by Nero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realizing that his execution is only a matter of time, Paul writes his final letter to Timothy, his son in the faith. This young man that Paul had disciplined and spent so much time with to invest in Timothy's life so that he could carry on the work of Paul once he was gone.

바울은 로마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사형선고가 바로 자신에게 내려질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네로 황제에 의해 곧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처형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그의 일을 지속하도록 하기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디모데를 제자로 만들었고 그의 생활에 바울 자신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So Paul now is writing his final epistle, this is the last of Paul's epistles. Shortly after this, he was beheaded there on the Appian Way just outside of Rome.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는 로마 근교의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So, (1 절)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which is in Christ Jesus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1:1),

You see, the sentence of death is now hanging on him. So what's he talk about? Life in Christ Jesus, that eternal life. Jesus said, "Don't be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your body, and after that they don't have any power" (Matthew 10:28). And so as Paul is writing with the sentence of death upon him, knowing that his execution is only a matter of time, it is interesting how he writes about life. I'm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not of death but "of life which is in Christ Jesus."

자 보십시오. 죽음의 형벌이 이제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지금 자신의 처형이 시간 문제로 죽음이 코앞에 까지 이른 마당에 그는 생명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죽음으로 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John tells us,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at life is in the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s life” (1 John 5:11).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that is in Christ Jesus.” Oh thank God, even with the sentence of death hanging over us, we can talk about life, that eternal life, that age-abiding life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When the rich young ruler came to Jesus and fell there at His feet, he said, “Good Mast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inherit this age-abiding life” (Matthew 19:16)? He saw in Christ that quality of life and he desired it, that quality of life that is ours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He who has the Son has life.”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요일 5:1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을 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영생을 얘기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9 장 16 절에 보면, 어느날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그 발아래 꿇어 앉아 말하기를 “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적인 삶을 보아쓰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질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2 절을 봅니다.

To Timothy, my dearly beloved son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테에게 (1:2):

Notice the endearing terms of Paul now towards Timothy as he realizes this is probably the last time I'm going to write, be able to write to him “my dearly beloved son.” And so there's a lot of emotion, a lot of pathos in this second letter to Timothy because of the background of this whole epistle.

이제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가 디모테에게 쓸수있는 마지막 편지가 될것을 깨달음에 따라 디모테를 향한 바울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는 용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쓴것에 주목 하십시오. 이 편지를 쓰는 배후의 사정 때문에 디모테에게 쓰는 두번째 편지에는 많은 감정과 비애가 들어 있습니다.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1:2).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1:2).

These beautiful gifts of God: His grace, His mercy, His peace.

그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3 절,

I thank God, whom I serve from my forefathers with a pure conscience, that without ceasing I have remembrance of you in my prayers night and day (1:3);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1:3);

The men that God uses are men of prayer. Paul is constantly in his epistles referring to his prayer life. He was a man who lived and slept and breathed prayer. He lived in close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Jesus Christ, and so is the case with those men that God uses, they are men of prayer. And here Paul

speaks about his praying for Timothy without ceasing night and day, because Paul realized that if the ministry of the Word was to be carried on in truth, really the heavy burden was going to be upon Timothy once Paul left. When Paul sent Timothy to the church in Philippi, he said, “I have sent unto you my beloved son Timothy because I don’t have anyone else who is likeminded as I am, who really has you at his heart” (Philippians 2:19–20).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하여 그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숨쉬고, 잠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떠나면 디모데에게 남겨 질 말씀의 사역은 온전한 진리 안에서 전해져야 함으로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 장 19, 20 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로 파송할 때, 말하길”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 고 했습니다.

Timothy was one that had really modeled his life after Paul. Paul could say, hey, this young man has caught the vision. This young man knows my heart. And so he realized that Timothy was going to be the natural one to carry on that same ministry of the grace of God to the people. And that is no doubt why Paul invested so much time in prayer for Timothy, night and day. Oh Lord, he’s a young man. Lord, he doesn’t have the background and the experience but God, use him, help him, bless him, Lord. Oh, wouldn’t you love to have Paul praying for you night and day?

디모데는 바울을 본 받아 참으로 모범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 이 젊은이를 보게.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야, 또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한 사람이야”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에 밤낮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오 주님, 이 사람은 그저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배경도, 경험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용하소서, 그를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해 준다면 좋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And Paul said,

I greatly desire to see you, because I remember your tears (1: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1:4),

No doubt the last time Paul had seen Timothy there at Ephesus and had to leave him, Timothy was crying, probably wanted to go with Paul. Paul, they believed, was arrested in Ephesus at this time when the Roman church began to, I mean the Roman government began to persecute the church again. And probably as they bound Paul to take him back to Rome, as he said his farewell to Timothy, Timothy was just weeping and sobbing. And yet it was necessary that he stay and establish those brethren in the church of Ephesus, which were being harassed by the false teachers that had come in. And so Timothy, weeping; and Paul had vividly in his mind this beloved co-laborer, his son in the Lord, he had in his mind the tears as they were coming down Timothy’s face. He said, Oh, I greatly desire to see you. I remember your tears and I love to see you.

디모데가 바울을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그를 떠나 보낼 때,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으며, 또 어찌면 그와 함께 가기 원했음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교회를 다시 핍박하기 시작했을때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체포되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아마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려고 그를 묶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작별을 고했을때 디모데는 슬피 울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아직 교회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슬픔에 가득 찬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그의 마음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정말 네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4 절

that I might be filled with joy (1:4);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1:4);

What a beautiful bond is created through Jesus Christ among men and among women. This family of God, it exceeds even our natural family. The bond that God creates in our hearts and in our lives for each other, that love that is there. Paul sai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들 사이와 자매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끈이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서로를 위한 것이고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1: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1:5)

Or the pure faith.

that is in you, which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is also in you (1:5).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1:5).

So he came from a good line, you know, a godly heritage. What a blessing it is. What a blessing to have a godly grandmother. What a blessing to have a godly mother, the faith that was in my grandmother, the faith that was in my mother, the faith that God has planted in my heart.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신앙의 할머니를 모신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며 그 믿음은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You know, it's an interesting thing my grandmother was a very special woman. She lived in Santa Barbara and the pastor that came to the church there was just a young man, he wasn't married yet. And so she used to go with him on his calls so that there would be no questions in the minds of people if he called on some of the young wives or whatever, my grandmother was always with him and made his calls with him. She lived a life dedicated to the Lord, to serve the Lord. That was the whole passion of her life was to serve the Lord.

우리 할머니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산타바바라에 살고 계셨는데, 그 때 다시시던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나지 않도록 목사님의 연락이 오면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해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께 헌신 된 삶을 사셨고 또 주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모든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When she was in the hospital dying of cancer, they were short of nurses and so she would get up and go around and take bed pans to people and took care of them and waited on people there in the hospital because that was her life, just service. It was a life of service to God and a trust in God.

할머니가 암의 말기로 병원에 계셨을 때, 당시에는 간호사들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어나 각 침대를 두루 다니시며 병자들과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I recently found out that inscribed on her tombstone are the words “Jesus never fails.” And that was just the story of her life; it was a life of faith in the Lord. And so the family members, because that was just, was sort of the hallmark of her life, “Jesus never fails,” they put that on her tombstone. I didn’t know that, but over in Fairhaven here in Santa Ana on my mother’s tombstone, we have placed “Jesus never fails,” because the faith that was in my grandmother was passed down to my mother.

최근에 나는 할머니의 묘비에 “ 예수께 실패는 없다” 라는 글이 새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이며 또한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들은“예수께 실패는 없다”란 말이 할머니의 삶을 한 마디로 함축한 가장 적절한 글이라 생각해서 그분의 비석에 새겨 넣어 드린 것입니다. 또 이곳 산타아나에 있는 웨어 해븐에 있는 나의 어머니의 비명에도 “ 예수께 실패는 없다” 라는 똑같은 말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나의 어머니에게 전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I could remember from a child, my younger brother had asthma. And when he would have his attacks and start wheezing, couldn’t sleep, we had an old rocking chair that creaked. And as a little child, I could remember lying in bed hearing my brother wheeze, you know, that asthmatic wheeze that you know, it has a unique sound to it, and I could hear that. I could hear the creaking rocking chair out in the other room and I could hear my mother singing Jesus Never Fails. Jesus never fails. Heaven and earth may pass away but Jesus never fails. And I would go to sleep hearing her rock my brother during his asthmatic attacks singing of the unfailing grace of Jesus Christ. Whenever we were sick, she would come in and sing to us, Jesus Never Fails. My brother was healed of asthma; the Lord didn’t fail. And all through our life the Lord has taken care of us. The Lord didn’t fail.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에게 천식이 와서 시큰거리기 시작할 때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거슬렸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 내 동생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 집 다른 방에 있던 삐걱 거리는 흔들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힘들어 할 때면 그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 예수님께 실패란 없지 .. 예수님께 실패란 없지.. 하늘과 땅이 없어 진다 해도 예수님께 실패는 없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를 노래하는 어머니의 찬양과 동생의 천식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 들곤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우리에게 오셔서 “ 예수님께 실패는 없다”는 그 노래를 불러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실패는 없다는 찬양대로 나의 동생은 천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And so because this was so much a part of her life, without knowing it was on my grandmother’s tombstone, we had it put on her tombstone over here in Santa Ana. And so there in the cemetery in Montecito you’ll find a gravestone of my grandmother’s that says, “Jesus never fails”. Over here in Fairhaven you’ll find my mother’s gravestone that says, “Jesus never fails,” the faith that came from my grandmother to my mother and now passed on to us and we, of course, passing it on to our sons and now they, too, their sons and grandchildren and all. Oh how glorious it is the heritage that is ours in the Lord and in the things of the Spirit and it’s just, it’s just a beautiful thing.

할머니의 묘비에 그 말이 새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었지만, 어머니의 삶이 진실로 그러했기에 우리는 산타아나에 있는 어머니의 묘비에 그 믿음의 말을 새겨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몬테치토 공동묘지에 있는 할머니의 묘비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기 웨어해븐에 가면 우리 어머니의 묘비에도 “ 예수님께 실패란 없다” 라고 쓰인 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께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로 전해져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니까요.

Paul said I know the faith that was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also in your mother Eunice and I know it’s in you. Oh, the greatest thing that we can offer and give to our children is this heritage of trusting God in faith. How important that we pass it on.

바울은 말하기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스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안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자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것입니다.

Wherefore I put thee in remembrance that you stir up the gift of God, that is in thee by the putting on of my hands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1:6).

Now Paul has a couple of times already made reference to this. When Timothy was a young man and began to join Paul in the ministry there in Lystra, the elders laid hands on Timothy and prayed for him. And as they did, the Lord gave to Paul a word of prophecy in which the Lord spoke to Timothy, telling him the gifts that the Lord was giving to him and outlining somewhat the ministry that Timothy was to fulfill. And Paul has made mention before of this experience that Timothy had when the elders laid hands on him and he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e gifts of the Spirit and the word of prophecy directing his life and his ministry. And so Paul said, remember and stir up the gift that is in you that you received when the hands were laid upon you and the gift of prophecy was exercised.

이 말은 바울이 벌써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어릴 적, 루스드라로 가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을 때,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디모데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것들과 디모데가 성취해야할 사역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윤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받은 성령과 은사, 그리고 그의 사역과 삶의 방향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관한 과거의 경험을 상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안에 하나님이 이미 두신 은사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It is possible for us to neglect the gifts of God within our lives, but God did not give us these gifts to be neglected. He gave us these gifts to be used. And so Paul’s exhortation to Timothy, “Stir up that gift that is in you,” begin to exercise it again. By faith, begin to exercise again that gift of the Spirit that God has given unto you.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사들을 소홀히 여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소홀히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은 “너의 안에 있는 그 은사를 일으키라” 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의 은사들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For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1:7);

Now evidently, Timothy became a little fearful in the exercise of this gift. And I think that that is a tool that Satan often uses to discourage our exercises of the gifts of the Spirit. Fear. I don’t know what people are going to think, you know, if I say that to them. And we have this fear that many times restricts us from the exercise of gifts. But “God hasn’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 우리를 제한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 절,

but of power, love, and a sound mind (1:7).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1:7).

Spirit of power. Oh, thank God, the spirit of love, how important, and a sound mind.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8 절을 보겠습니다.

So,

Be not thou therefore ashamed of the testimony of our Lord, nor of me his prisoner: but be thou a partaker of the afflictions of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1: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8);

Now there are a lot of situations where we can just keep our mouths shut and stay out of trouble when we really ought to be opening our mouths and getting into trouble. You know, when people are saying blasphemous things we can just keep our mouth shut and sort of shrug and say, you know, poor stupid soul. Or we can say to them, Do you realize what you are saying? What a filthy mouth you have! Doesn't it bother you to have such a filthy mind and mouth?

때때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 어려움을 겪게 될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 어려움을 피할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할때 입을 꼭 다물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가련하고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요? 이런 지저분한 입 놀림을 하다니! .그렇게 더러운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보죠?”

I've often said to people when they are using the name of Jesus in a blasphemous way, Hey, that hurts me. You're talking about a man who I love more than anyone else, who died to save me from my sins, and it hurts me to hear you talk about Him that way. Hey. They sometimes get upset and they, you know, look like, Who do you think you are, you know, and all that kind of stuff. But yet Paul tells Timothy that “God has given us the power of the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a sound mind.” Therefore, don't be ashamed of our Lord but be a partaker of the afflictions of the gospel, we'll get to a little bit, “They who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2 Timothy 3:12). The promise in the Bible that I hate the most.

나는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건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군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구 보다 사랑하는 분이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겐 아주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때때로 그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네가 뭘테’ 하는 시선으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고,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들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9 절을 봅시다.

The power of God; Who hath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world began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1:9),

So God who called us and saved us, but it wasn't according to our works. We are not saved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God.

Now this was the message that Paul was proclaiming and the message that was being perverted by the legalism that was creeping into the church. Now remember that Timothy was ministering there in Ephesus, to the church in Ephesus. And already there were those seeds of legalism that had taken root and were beginning to turn the people away from the glorious gospel of grace that Paul had proclaimed. And Paul speaks to Timothy of his concern that they were turning away from the grace of God, and for him to establish them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오는 율법주의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디모테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 곳 에베소 교회는 이미 율법주의가 기승하여 뿌리를 내림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염려하던 디모테를 보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세우라고 말합니다.

A few years later Jesus wrote a letter to Ephesus and all was not well within the church. In fact, Jesus called the church of Ephesus to repentance and He said unless you repent I will remove My presence from you. They had come to the place where their whole religion was a works thing, because the Lord said, I know thy works, thy labor and so forth, and thy works. They had come to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y had come to a salvation based upon works. "Who saved us, and called us," Paul said,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world began."

여러 해가 지난후 예수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노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행위를 기초로 하려는데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Now the result of a legal relationship to the Lord is really the loss of relationship because Jesus doesn't want a legal relationship with you. He desires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e wants you to relate to Him in love. And so He said to Ephesus, "You've left your first love"(Rev. 2:4). You've got all these works, man, you got this whole thing going all kinds of works, but I have this against you, because you've left your first love. I don't want a legal relationship with you. I want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의 결과는 참으로 관계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는 당신과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계 2:4).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하였고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중 이지만, 너희를 책망할것이 있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너희들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사랑의 관계니라."

And tonight Jesus is looking for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e's not interested in all of these little rules and regulations and keeping your works up. He's interested in your just loving Him supremely, this loving

relationship. “I have this against you, you’ve left your first love. Now remember from whence you ar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over” (Revelation 2:4-5). That is, the works that were motivated and prompted by love. “Or else, I will move the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Where was the place of the candlestick? Jesus was walking in the midst. So Jesus is saying, I’ll take my presence from your midst if you try to have a legal relationship with Me. That’s not what I want, I want love relationship.

오늘 밤 예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규칙이나 조항들을 세우시거나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그분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처음 행위란 사랑을 동기로 시작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촛대가 있었던 곳이 어딴디까?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나와 율법적인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나는 네 가운데서 떠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노라.”

And so Paul is encouraging him, in the grace God has called us, with this holy calling. But God didn’t call you because of your works or because you were deserving or worthy of it, but just to accomplish His purposes of love and of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before the world began. “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절 말씀을 봅시다.

But it is now made manifest by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1:10)

그러나 이제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1:10)

God has always loved us but the love was manifested.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You se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earth shows his handiwork. Day unto day they utter their speech” (Psalm 19:1,2). I have no argument with the man who says, God speaks to me in nature. God speaks to me in nature. And how I love for God to speak to me through nature. How I love to walk along the beach. How I love to get into the surf. How I love to watch a beautiful sunset. How I love to sit under the stars out in the desert and just look up into the heavens and the vastness of the galaxies and all. How I love to see the raging streams. I love Yosemite. I love nature. God speaks to me through nature. I have no argument. The Bible says that God speaks to you through nature. “Day unto day they utter their speech. Night unto night their voice goes forth. There isn’t a speech or a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n’t heard.” Yes, I believe that God can speak to you when you go out to the desert. When you go up to the mountains. When you take a Sunday off and just go out among nature and just enjoy the beauty of God’s creation. I believe that God speaks to you there. I have no argument with that.

시편 기자는 기록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 라고 말합니다 (시편 19:1-2). 나는, ‘하나님이 자연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해변을 거닐기를 좋아합니다. 파도를 타는 것도 좋아하지요. 또 해 지는 것을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막에서 쏟아져 내리는 별들 아래 앉아 하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면 광대한 은하수와 그 온갖 것들을 감상하는 기분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힘차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자연을 사랑 합니다. 그래서 요세미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나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으나.’ 나는 여러분이 저 사막가운데 나가거나 혹은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일날에 날을 정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But what nature cannot and does not tell you is how much God loves you. It took more than nature to reveal that. It took Jesus Christ. It is interesting that whenever God wants to show you His love or to prove His love to you, He always points to the cross. And so God who loved us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but has manifested it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r Jesus Christ.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줄수도 없고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계시하려면 자연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입증된 것입니다. (10 절 하반절)

who has abolish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1:10),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지라 (1:10),

Now here Paul got the death sentence. Nero says, you know, death sentence is upon him, but Paul says God has abolished death. Oh, thank God for the life that is ours.

이미 바울은 사형선고를 받았습시다. 네로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음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해 감사합니다.

The Christian does not die. It is wrong to say of a child of God he died. The Christian does not die. Paul the apostle said “we know that when the earthly tent of our body is dissolved,” when my body goes back to dust, decomposes and goes back to dust, I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in these tent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move out of this old tent: not to be un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new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ese bodie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8).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몸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몸은 썩어져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 이 육신에 거하며 킁킁대던 우리 몸은 이 오래된 몸을 벗어나고자 애쓰며 실체가 없는 영혼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새 옷으로 덧입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몸에 거하는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있었지만, 이제 원하는 것은 이 몸에 거하기 보다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후 5 장 1-8 절)

So when a Christian dies, rather than saying, Oh, he died last week, we should say, Oh, he moved last week. Have you seen John lately? Oh, didn’t you know, he moved into a beautiful mansion. He’s no longer living in that old tent. “Who has abolish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아, 그 사람 지난 주에 죽었어’. 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 친구 지난 주에 옮겨 갔지. 아마 아주 근사한 집으로 갔을 걸. 하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Jesus said to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Yes, Lord, I know on the last day he's going to rise. No,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m here now, and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you'll never die". He said,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That's the Gospel. That's the good news that we have to proclaim. The Lord has abolished death. He who lives and believes shall never die. Oh, move, yes. That's important and that's desirable. I wouldn't want to live in this dumb, old tent forever.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 예.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 것이고, □□ □□□ □□ □□ □□□ □□ □□□□ □□□ □□ □□□? " 라고 하셨습니다.(요 11:25,26)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폐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옮겨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사모할 만한 것이지요. 나는 이 낡고 지독한 장막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Everyday I live the Lord is making it just a little bit easier, more desirable to move. I'm getting aches and creaks that I've never had before. I've had the most difficult time walking across the floor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 mean, it takes awhile now to get warmed up. My feet just kill me in the morning, especially after a few sets of tennis. Not a funny thing, it's miserable, growing old. The old tent slowly dissolving, but I have a building of God for God has abolished death and brought us life and immortality.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장차 옮겨 가야할 곳을 더욱 갈망하게 하며, 또 조금씩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나는 점점 아픈 곳이 늘어가고 또 전에 없이 뼈격거리고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한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지나가는 일조차도 내겐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다 테니스라도 친 다음날 아침이면 발에서 힘든 통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오래된 장막이 점점 스러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폐하시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장막을 가졌습니다.

Whereunto [he said] I am appointed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of the Gentiles (1: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The three things that Paul was called to do. He was a preacher, he was an apostle, he was a teacher. Preaching is ordained by God to bring the unbeliever to a faith in Jesus Christ. Preaching is not for the Christian or the saint or the church, preaching is for the unregenerate. For in the preaching, I am proclaiming to the unregenerate God's good news to man. You don't have to go on in sin and die in your sin and trespasses. You can have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Repent;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hat's preaching.

바울은 세가지 직임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자란 믿는 자나 혹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주를 따르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가운데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 역시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좇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지거나 또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회개; 우리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Teaching is what the church needs. Now the weakness of the church today is that there is too much preaching and not enough teaching in the church. The church has been preached almost to death, and what the church needs is teaching. Teaching us how to walk, teaching us how to grow, teaching us how to develop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That's what the church needs, the teaching of the Word, and that's

where the church is failing in a real teaching ministry. So Paul had a combination of a preaching and a teaching ministry, called as an apostle.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거나 혹은 가르침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하며 또 거의 죽기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관계가 발전해 갈수 있는지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실패하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으로써 가르치는 일과 반포자의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12 절 말씀.

For the which cause [he said] I also suffer these things: nevertheless (1:12)

□□ □□□ □□ □ □□□ □□

These things you know, I'm in prison, I've been sentenced to death and it's because of my teaching and preaching that I'm here in prison. Nevertheless, he said,

이 말씀의 뜻은; 그가 가르치는 일로 또한 진리를 반포하는 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1:12), □□□□□□

□□□□ □□ □□□ □□ □□ □□ - 라고 말합니다.

Now notice, he didn't say I know what I believe. Now there's a lot of people today say, Well I know what I believe. You know, I believe in the Orthodoxy. I believe in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and they know what they believe. But it's not what you believe or in what you believe but it's in whom you believe that's important.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믿는것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지 않는것에 유의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뭘 믿는지 알아' 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신경도 믿고 또 신앙의 정통을 믿는다' 이 말은 그들이 무얼 믿는지 그들이 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혹은 무엇을 의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의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 12 절을 계속합니다.

and I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1:12).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12).

I have committed my life to Him. I am persuaded He's able to keep it.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Correct orthodoxy is important, but a Creed can't save you, only Jesus Christ can save you. It's not belief in a system. It's not belief in a religion. It's not belief in a doctrinal position. It's belief in a person that brings salvation. It's the belief in Jesus Christ. And so we know, we need to know in whom we have believed.

나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 분이 그것을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그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통교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종교나,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믿는것이 구원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aul said, "I'm persuaded He'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That word "I have committed" in the Greek is an interesting word. It's a word that is used for making a bank deposit. I've entrusted it. So I've entrusted my life to Him. He's able to keep it. Nero may take my head off but He's going to keep my life because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I am persuaded He's able to keep me.

바울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했으며 그 분이 그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말로 ‘내가 위탁했다’란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위탁했다는 뜻으로 내 삶이 그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로왕은 그의 머리를 잘라 참수해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믿는 그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Hold fast that form of sound words, which you have heard of me, in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 (1: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13),

As these false teachers were beginning to come along. And you remember Paul in his last recorded visit in the book of Acts, with the elders of Ephesus, as he had come to Miletus and he had sent a message to the elders in Ephesus to meet him in Miletus because he was in a hurry to get back to Jerusalem, wanted to get back there before the feast, that he might take the offering back to the church in Jerusalem that he had collected among the Gentile churches. And so they met him on the beach, the ship was offshore waiting for Paul. And he was talking with the elders of the church of Ephesus. He said I’m going to Jerusalem.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ll I know is everywhere I’m going, the Spirit’s warning me I’m going to be bound and so forth. Beyond that, I really don’t know, the Lord hasn’t shown me.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방문한 것을 기억하시겠죠. 이 거짓 선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가 밀레도에 왔을 그 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기를 청하자 그들이 밀레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둘렀던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 중에 자신이 소집한 교회들에게 그 동안 모금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오순절 축제 전에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에서 만났고 배는 바울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경고하시는 것뿐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I want you to bear record, that night and day I bore faithful witness of Jesus Christ as I lived among you and I told you and I showed you the things of the Lord. Now he said I know that after I depart, grievous wolves are going to come in not really with pure motives. They’re not going to spare the flock of God. They’re going to bring in these pernicious doctrines. And even from your own midst, men are going to rise up and trying to draw men after themselves, trying to create little factious groups. And Paul was weeping. He said I know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I can’t stop it. But he encouraged them to the faithfulness of the Word and the faithfulness of the teaching that he had given to them.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면서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실한 증거를 했고 주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해 주었고 또한 보여 주었던 것을 기록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를 떠남 후에 너희를 괴롭히는 흉악한 이리가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러한 파괴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리라. 심지어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작은 당을 지으리라. 바울은 울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노라. 그러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바울은 그가 저희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Well, it was true. After Paul left, these men did come in. And so as Timothy is there and trying to buck these doctrines that are raising up their ugly heads within the church of Ephesus and these men who are trying to create these little divisions by getting these weird doctrines and espousing some strange thing and all. Paul says, “hold fast that form of sound doctrine or words which you have heard of me.”

이 말씀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기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심술궂은 머리를 치드는 이러한 교리들과 이상한 교리를가지고 와서 이 이상한 것들을 권장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바 바른 말씀을 굳게 잡으라.” 14 절로 이어집니다.

That good thing which was committed unto you keep by the Holy Spirit which dwells in us. For this you know, that all of they which are in Asia have turned away from me; of whom are Phygellus and Hermogenes (1:14-15).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14-15).

That is, the truth, the word of God.

‘아름다운 것’ 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합니다.

Those in Asia had now turned their backs upon Paul. He was no longer able to be a strong influence there. They didn't have to fear him come in apostolic power to correct their false doctrines anymore and they were becoming emboldened in their heresies and in the drawing of people after themselves. Paul names a couple of them, “they've turned away from me”. What a sad thing. Paul was really pretty much forsaken now. With the sentence of death upon him, even Dimas who had been a companion for so long had forsaken him. Others have fled. Luke only was remaining with him there in Rome, but there was one faithful brother, Onesiphorus.

당시에 아시아는 이미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려는 사도의 권위를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 사람들을 자기쪽 이단으로 끌어들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두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 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데다가,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디마 마저도 그를 저버렸고 다른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그와 함께 로마에 남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신실한 형제, 오네시보로를 만나게 됩니다. 16 절,

The Lord gives mercy unto the house of Onesiphorus; for he often refreshed me, and was not ashamed of my chains (1:16):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1:16):

Paul was chained there in a dungeon in Rome and Onesiphorus went to Rome and searched through dungeon after dungeon until he finally found Paul and there ministered to him and encouraged him.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 로마에 오게 된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을 찾기 까지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다니면서 그를 찾을 때 까지 수소문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그를 도우고 격려하였습니다. 17, 18 절을 함께 읽습니다.

But, when he was in Rome, he sought me out very diligently, and he found me. And the Lord grant unto him that he may find mercy of the Lord in that day: and in how many things he ministered unto me at Ephesus, you know very well (1:17-18).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1:17-18).

So this Onesiphorus had been just a blessed man and had ministered to Paul while Paul was in Ephesus and then came to Rome and searched until he found him and there ministered to him. Paul praised God's mercy and blessing upon him for it.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섬겨왔던 사람으로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자 로마로 와서 바울을 만날때까지 살살히 뒤졌습시다. 바울을 찾아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훈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섬김에 대하여 오네시보로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2 장 1 절을 들어갑시다.

Thou therefore,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2: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1)

You see, it is legalism that is threatening the church. This idea that you can work yourself into divine favor. So "be strong in the grace"

보시다시피,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2 절 말씀을 계속합니다.

that is in Christ Jesus. And the things that you have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2:1-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 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1-2).

And so this is how the Gospel is spread. As Paul said, Now you remember the things that I said and I was teaching among many of the brethren. Now you take these same things and commit them to faithful brethren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the discipling of men in the truths of God, investing your lives in others. As we have grown older we've sought to invest our lives into younger ministers, sharing with them, spending time with them, teaching them, committing to them the Word of God, in order that they might then go out and give the same thing to faithful men, who will then be able to go out and teach others.

복음이 바로 이렇게 전파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말했고 가르친것을 기억하라' 고 했습니다. 이제 네가 꼭 같은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제자를 삼는 것이며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여 그들과 삶을 나누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아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며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을것입니다.

When we started our ministry here at Calvary Chapel, we met with a group of men and many times their wives five nights a week. For two years, the first two years, five nights a week we gathered together entrusting to these men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studying several books, going through the entire Bible with them. After two years with these men, I said, All right, the time has come; you fellows start teaching your own home Bible studies. And so they started teaching their Bible studies in their homes. I would every week get calls from them when they were going to have a Bible study that night; they'd have a list of questions that they'd go over before they went to their Bible study, they had their Bible studies in their homes.

이곳 갈보리 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5 일을 부부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2 년 동안에는 우리는 함께 모여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2 년 후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각자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날마다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 가르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나에게 매주일 전화를 하여 질문하곤 했습니다.

After two years many people who were saved in their Bible studies then started their own home Bible studies. And it was passed on and on and on from spiritual generation to spiritual generation. People who were saved in a Bible study began to teach a Bible study in which men were saved, who went out and later on began to teach their own Bible studies, and so it goes on and on. It is, as it is passed, you teach faithful men who are able then to teach others. You disciple others so that they in turn can disciple others. And so the progression goes.

그 후 또 2 년 후에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대로부터 또 다른 세대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된 것이죠. 성경공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도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Paul said,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3 절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2:3),

We’re in a real battle, a tough battle. It’s a battle of the eternal destiny of human soul. It’s a fierce battle. The enemy is relentless. He attacks night and day. He never eases. The pressure is great. “Endure hardness,” Paul said, “as a good soldier”. Hang in there.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 그것도 아주 거친 전쟁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입니다. 대단히 격렬한 싸움이며 우리의 대적은 아주 잔인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옴으로 대단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좋은 군사로써 심한 고난을 견뎌내라’ 계속해서 4 절 말씀.

And no man that wars entangles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2:4);

□□□ □□□ □□ □□ □□□ □□□□ □□ □□□ □□□ (2:4);

And that’s our problem so often. As Jesus said, “In the last days, be careful lest you at any time be overcharged with gluttony, surfeiting, or with drunkenness, or the cares of this life so that the day of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atch you by surprise” (Luke 21:34). Catch you unaware. Jesus in talking about how that the thorns grew up with the wheat. Identifying the thorns, He said the desire for riches, the cares of this life and the desires of other things choke out the fruitfulness of the Gospel within their life. So the cares of this life can choke out the fruitfulness. No man who is in war, no man who has signed up for the army gets all involved in the little mundane things of life. Hey, I’m in a battle and I can’t get bogged down with the cares of this life.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 □□□ □□□□ □□□ □□□ □□□□ □□□ □□□ □□□ □□□□ □□□ □□□ □□□□ □□□□” 고 하셨습니다 (눅 21:34). 여러분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시나무와 밀이 함께 자라는가를 말씀하시며, 여기서 가시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을 결실치 못하게

막는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 자기 생활의 작은 일들에 억매어 있습니다. 나도 전쟁에 있으며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을수는 없습니다. 4 절 하반기

please him who has chosen me to be his soldier (2:4).

□□ □□□ □□□ □□ □□□ □□ □□□ (2:4).

My desire is that I might ;

이것이 바로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You see, I have made a commitment unto the commanding general that I will serve, that I would go into battle, that I am on-call. Anytime he can give an order for me to move out, must be ready to go. I want to please Him who has called me to be His soldier. That’s the whole desire of my life, to please God who has called me into this warfare.

나는 나의 섬기는 사령관에게 명령을 받는 즉시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이미 서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가 내게 호출 명령을 내릴수 있으므로 나는 뛰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신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를 이 전투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Also if any man strive for the masteries is not crowned, unless he strive lawfully (2: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5),

Now Paul was referring here to the Olympics and the wrestling competition within the Olympics. And the wrestling competition in those days was called striving for the masteries, striving to master over another one. Throw him out of the ring. Pin him on his back. He who “strives for the masteries,”

You see, the referee can blow the whistle on you and say, Hey, hey, that was not right, you know, you hit him after I called “Break.” You’re not crowned unless you strive lawfully. There are the rules by which you must wrestle.

이제 바울은 씨름을 벌이는 올림픽 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벌어지던 씨름은, 누구든지 상대를 먼저 링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그의 등뒤에서 그를 꼼짝 못하게 붙잡으면 경기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고합니다. ‘이봐, 이건 반칙이야. 내가 분명히 “공격 그만” 이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이 사람을 계속 때렸지. 당신은 경기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챔피언이 될 수가 없소.’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6 절

The husbandman that laboureth (2: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2:6)

The man who is out there in the field laboring gets the first fruit of harvest. You are able to eat while you are in the field working, picking the fruit. You could eat the fruit.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 때,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He’s the first partaker of the fruits. Consider what I say; and may the Lord give you understanding in all of these things. Remember that Jesus Christ of the seed of David was raised from the dead according to my gospel (2:6-8):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6-8):

This is the heart of the Gospel,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Don't forget that. Remember the resurrection, without that we have no gospel. And so he's encouraging him to come back to the heart of the Gospel. And you find that everywhere they went the center message, the thing that made Christianity different from Buddhism or Confucianism or any other religious system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So he's reminding him of that unique Confucianism difference in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 오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종교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 혹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디모데에게 상기 시킵니다.

Wherein [he said] I suffer trouble, as an evil doer, even unto these bonds [these chains]; but [thank God] the word of God isn't bound Therefore I endure all things for the elect's sakes, that they may also obtain the salva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2:9-10).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2:9-10).

They can bind me, they can bind my arms to the soldier next to me, to this guard, but they can't bind the word of God. So I endure these things because God has elected certain people to be saved. And if by my sacrifice, by my commitment, I can bring them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great. My desire is to see the salva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that they might share the eternal glory of a child of God.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군인들은 나의 팔과 몸은 결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참음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직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영광을 나눌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이 보게하는것입니다.

So in another place he said, "I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n'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when Christ comes" (Romans 8:18). Oh yeah, it's hard now. Yeah, it's tough. Yeah, it's not easy. There's suffering, but it can't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e eternal glory. So he said, Our light affliction. Light affliction, Paul? You see, you say once you were stoned, three times you were beaten with rods, three times you received thirty-nine stripes, you were shipwrecked, you were beat up, you were imprisoned, how many times? Light affliction, Paul?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worketh an exceeding eternal weight of glory" (2 Corinthians 4:17). Interesting contrast: light affliction for a moment, eternal weight of glory. So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Don't get all entangled in worldly things. Seek to please the One who has called you to be a good soldier.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롬 8:18). 사실 그것은 정말 힘겹고 고달프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앞으로 닥아 올 영원한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가벼운 환난'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것이 경한 환난이 라고요?" 당신이 말하시기를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사십에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파선하는데서 지냈으며, 매를 맞았으며, 옥에 갇히기도 한것이 몇번 이었던가? 바울 선생님, 그것이 경한 환난이 라고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고후 4:17). 재미있는 대조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러므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이기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에 억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They're going to take my life pretty soon, but that is this physical life, but I'm going to be living with Him.

그들은 내 생명을 앗아 가겠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일 뿐이요,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It's a faithful saying [it's a true saying]: If we be dead with him, we shall also live with him.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if we deny, he also will deny: If we believe not, he abides faithful: he cannot abide deny himself (2:11-13).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 쟈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2:11-13).

There are some people who say rather pompously, Well I just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So what? You see, your believing or not believing doesn't alter the facts one iota. You may deny Him but He can't deny Himself. That would be impossible to deny your own existence. So your saying I don't believe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is like saying, I don't believe that two and two equals four. I just look at you and think you're a little nuts, but that's all right, you have your right to be but you don't change the facts. Your believing or not believing doesn't alter the fact at all.

어떤 거만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믿건 안 믿건 조금도 달라 지지 않아.” 당신은 그분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 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2+2 가 4 라는 것을 믿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될 권리는 있겠지만, 사실 자체는 바꿀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던 안 믿던,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that He did die for our sins, is a fact that remains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You see, your believing or not doesn't affect Him at all. It does affect you seriously and for eternity. And so it is rather ridiculous to say, Well I don't believe, and to think that it doesn't exist just because you don't believe it. You can deny the truth but He can't deny it. He can't deny Himself, what He is and what He has done. So if we don't believe, it's still true. He can't deny Himself.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원한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 ‘난 믿지않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가 어떠하신 분이며 행하신 일을 부인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니까요. 14 절을 봅시다.

So,

Of these things put them in remembrance, charging them before the Lord that they strive not about words to no profit, all they do is subvert the hearers (2:14).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2:14).

There are those that get all involved in words and in little concepts and twists, and all, of a scripture, and they are really totally unprofitable. Do you know that the church was divided once over an argument on how many angels could stand on a head of a pin? People used to argue over that. And people have all these concepts. Oh, it's stupid. That's not going to help anybody. And you look at a lot of these things that people bring up and a lot of divisions that are created. How were you baptized, brother? You know, and they well, you weren't really baptized then. And, You better be baptized the right way. You were baptized backwards? Oh no, that face down, man. That's the only way. And they get in these silly, little things and all, and all it does is subvert people, subvert the hearers.

어떤 사람들은 언쟁에 빠지거나 성경에 있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왜곡하여 서로 다투는데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작은 핀 조각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서 있을 수 있는지 서로 논쟁하다가 교회가 두쪽으로 갈라진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그저 사람들이 제기한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많은 분열만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문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님? 형제님은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침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를 바르게 받아야지요. 뒤로 침례를 받으셨다구요? 이런, 앞으로 숙이셨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리석고 작은 일에 말려들게 하여 듣는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5 절,

Study to show your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doesn't need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2:15).

□□ □□□ □□□ □□ □□□□ □□□□ □□ □□ □□□□ □□□□
□□ □□□ □□□ □□ □□□□ □□□□ (2:15).

This particular scripture was the inspiration to Scofield in setting out the dispensations in the Scofield Bible,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I think he went a little far with it. But it's interesting that this is the verse that inspired him to make the divisions, especially within the Scofield Bible as he shows you the dispensation of innocence, the dispensation of government, the dispensation of law, the dispensation of grace, and the dispensation of the future reign of Christ. The dispensations, rightly dividing. But it is important that we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Study. It's important that we study.

이 특별한 성경 귀절은 스코필드라는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 시대적 구분을 중시하는 세대주의를 설명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해석이 조금 지나쳤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감을 준 이 말씀이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죄시대, 인류통치시대,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물론 중요한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절 말씀.

But shun profane and vain babblings: for they will increase unto more ungodliness (2:16).

□□□□ □□ □□ □□□ □□□ □□□ □□□□ □□ □□□□□□
(2:16).

There are those who turn the grace of God into a cloak to cover their own lasciviousness. Well, if God is so ready to forgive and so full of grace, it really doesn't matter if we do it because we can just ask Him immediately to forgive us then, and it would, He's graceful and it's all over. So let's go ahead and do it and then we'll seek the grace of God to forgive us. No, these kinds of vain and profane babblings only increase ungodliness.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음탕함을 은폐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워낙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얼 하든지 관계없이 그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는 즉시 우릴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렇게 해 보실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헛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은 악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Paul himself said, Shall we go out and sin freely then that grace may abound? Perish the thought! How can we who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The grace of God is not an excuse or a cloak or a reason to go out and just to live recklessly saying, well, the grace of God will cover me. Profane, vain babbling, be careful of it.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 □□ □□□ □□ □ □□□ □ □□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명하거나, 눈가림하거나, 밖에 나가서 무례히 살면서 ‘ 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허무하고 세속적인 말을 주의하십시오. 17 절 18 절을 보겠습니다.

Their words will eat like a canker worm: of whom is Hymenaeus and Philetus (2:17);

□□ □□ □□ □□□ □□□□□ □□□ □ □□ □□□□□ □□□□ □□□□ (2:17);

I mean, Paul doesn't mind naming these fellows, does he? Paul, shame on you. I'm going to write you a letter.

Who concerning the truth have erred, saying that the resurrection is past already; and they overthrow the faith of some (2:18).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2:18).

Now the Jehovah Witnesses say the resurrection is already past and Jesus came again in 1914; didn't you know? Oh, but I thought every eye was going to see Him. Oh no, only those with spiritual eyes. Those who were living in the headquarters in, they saw Him, in New York spiritually, with spiritual eyes. And He set up His reign in a secret chamber and He is ruling now from this secret chamber through these men in New York. But we're in the Kingdom Age. Satan is bound. Glory to God.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은 1914 년에 다시 오셨다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것으로 생각했어요. 오,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뉴욕에 있는 왕국회관 본부에 사는 사람들만 오직 영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다시 살아나셨고 비밀 장소에서 오직 뉴욕에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지시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탄은 결박되었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Hey, if this is the Kingdom Age, I'm greatly disappointed. I was hoping for much better than this. I wish the Lord had not put such a long chain on him. He still has enough rope to give me a bad time. "Who have erred concerning the truth, saying that the resurrection has already taken place and they subvert the faith of many people." They're turning a lot of people away to this weird little doctrine of theirs, drawing a lot of people after this.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장대로 천년 왕국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긴 사슬로 마귀를 묶어 놓았기 바랍니다. 마귀의 사슬이 너무 길어서 아직까지 나에게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대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괴상하고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어 떠나 갔습니다.

Nevertheless the foundation of God stands, it stands sure, it has this seal, The Lord knows those that are his And, Let every one that names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2: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2:19).

If you take the name of Christian, if you take the name of Christ, then depart from iniquity.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인이라는 호칭을 가졌다면, 또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떠나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20 절 말씀을 봅시다.

But in a great house there are not only vessels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of earth [clay]; some to honour, some to dishonour (2: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20).

Paul here refers to the church as a great house. Jesus in the kingdom parables indicated that the church was going to become something God didn't intend it to be. Those seven parables in Matthew's gospel, twelfth and thirteenth chapter, that deal with the Kingdom Age, talking about the church.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합니다. 천국비유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되어갈 것이라고 시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13 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는 천년 왕국시대의 교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It's like unto a mustard seed that's very small, but it was planted and it grew up into a great tree. Wait a minute. Mustard, you know they don't really have mustard trees, they have mustard bushes. If you've got a tree, you've got to have normal growth. And the birds or the fowls of the air came and lodged in it. The birds in the Scripture are always used in an evil sense. You remember the parable of the seed that fell by the wayside and the birds came and plucked it up. Now the birds were Satan who plucked the Word out that it couldn't take root. What's He saying, Satan's going to lodge in the branches of the church? Oh yes, he has found lodging within the branches of the church.

교회를 한 알의 겨자씨로 비유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자라게 되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겨자라고 했지요. 그때 그들이 가진 것은 겨자 나무가 아니라 그저 겨자 나무 덩굴뿐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를 하나 가졌다면, 그 나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언제나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들은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단이 교회의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가지들에 붙어 기생하는 것입니다.

There is more junk that comes ou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roclamation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proclamations than you can believe. "Concerning Hymenaeus and Philetus who have erred concerning the truth." Corrupt men of corrupt minds putting on a clerical garb, taking the title of Reverend and espousing every rotten cause that comes along, every damning issue that would demoralize and destroy our society, and these men are ready to take it up and champion it. And they're ready to fight against anything that is good.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세계 교회 협의회라던가 또는 국내 교회 협의회와 같은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기억하시죠? 진리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성직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직명을 얻고서 온갖 더럽고 썩어진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함으로 사회를 부패, 타락하게 만드는데 선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 선한 것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A group of ministers filed a suit against President Reagan for proclaiming the Year of the Bible in 1983. Hey, wearing a backward collar doesn't make a minister out of anybody, only God ordains. A lot of

men have the title of Reverend. I would fear anybody taking that title. Sometimes people call me Reverend Smith and I cringe. They write that on the book on the letters and I cringe, I know that they don't know me when I get these letters, Reverend Charles Smith or the Reverend Charles Smith or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I know, hey, they don't know me cause I don't consider myself Reverend at all. There's nothing reverend about Chuck Smith. The Bible says we are to reverence God's holy name. That I do. But I don't want anybody reverencing my name or me. God help me. I'm a sinner just like you. I need the grace of God just like you.

한 사역자 모임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3 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한 것에 대해 그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라를 뒤로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그 직함을 취하는 것을 보면 나는 두렵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척 (존경하는) 목사님' 이라고 부르면 나는 갑자기 몸이 움츠러 들기도 하고 또 편지에다 '친애하는 척 (존경하는) 목사님' 혹은 '가장 훌륭한 척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호칭을 쓸 때면,, 나는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나 자신을 대단한 (존경하는) 목사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척 스미스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존경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고 여러분들과 똑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In a great house, though, many vessels, some gold, some silver; some wood, some clay. Some for honor, some for dishonor.” Kingdom of heaven is like a woman hiding leaven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it permeates the whole lump. Leaven is always used in an evil sense in the Scriptures, the leaven of sin, the leaven of hypocrisy. It's a type of sin because it multiplies by putrefaction. It does make an excellent type of sin, which multiplies by putrefaction. And so the church, the leaven within it until it leavens the whole lump, the evil influences that have their way of permeating through the whole church.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천국비유는,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의 누룩, 또는 위선의 누룩으로 말입니다. 죄는 부패함으로 배가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누룩은 부패하여 배가 되는 죄의 훌륭한 모형입니다. 교회에 경우에 있어서, 온 덩이에 누룩이 퍼지게 된다는 것은, 교회 전체에 악한 것이 침투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unto a man who planted wheat in his field, and at night the enemy came and sowed the tares. So that the servants, as it began to grow said, Lord, there are tares going on among the wheat, shall we go out and pull them up? No, He said, let them grow together until the end and then at harvest, take and gather the tares together and put them in bundles and cast them into fire but bring the wheat into my barn. Jesus taught that these evil influences would exist within the church, that they would grow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 great harvest.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밤이 되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랄 때에 종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기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보이는데 뽑아 버릴까요?' 하고 묻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것들은 추수의 때까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The church is made up of all kinds of people. And it's wise for you to recognize that because you can get skinned by people calling themselves Christians almost more readily than anybody else. Not all who say, "Lord, Lord", are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let's not be blind or foolish about this.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it's made up of all kinds of people.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쉽게 먼저 자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장님이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말시다.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니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ank God there is the good. Thank God for the faithful. Thank God for those who are really seeking after God with all of their hearts. And it's because of those we can continue to exist. If it weren't for those, the Lord would have brought judgment on the church a long time ago and it would have been wiped out. But the time will come when judgment will begin. Where? At the house of God. And "if the righteous scarcely be saved, where will the sinner and the ungodly appear?" (1 Peter 4:18). I mean, if the judgment begins at the house of God, what you going to do when you get to San Francisco?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에 선한 분들도 있고, 성실한 분들로 있으며,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오래 전에 교회에 심판이 와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때가 곧 올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벧전 4: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다시 말해 볼까요? ‘ 만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 저 샌프란시스코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So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And those that are spending their lives in ministries to perfect the church so that the Lord can come again are due for a great disappointment, because in a great house there are all kinds of vessels, some are for honorable purposes, some for dishonorable purposes. Those of gold and silver were for the master of the house, that he might eat and drink out of these vessels of gold and silver. These were those that you love to use and entertain with when company comes. You bring out your best silver and your best golden cups and bowls and all, vessels of honor, want to display.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여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는 모든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은 귀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그릇들은 천한 용도로 쓰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주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인의 먹고 마시는 식기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들이며 동료들이 올때 그들을 대접할때 사용하는 그릇들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은 그릇과 가장 좋은 금잔과 대접등등의 가장 훌륭한 그릇들을 보이기 위해 가져 나올것입니다.

But in the same house, big house, you got so much garbage it's got to go out. So you've got a clay pot over there in which you dump all the garbage, vessel of dishonor. You throw the trash in it; you carry the trash out with that, all kinds of vessels, some of honor, some of dishonor. We are in this great house. We are a vessel.

그러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갖다 버릴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쓰레기를 담아 버릴 이 진흙단지 는 바로 천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됩니다. 쓰레기를 여기다 담을 것이고 모아진 후에는 갖다 버리게 될 테니까요. 온갖 종류의 그릇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우리는 이 커다란 집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What kind of a vessel am I? Am I a vessel of honor that is fit for the master's use? How can I be? First of all, I've got to separate myself from those impure doctrines and men who are espousing the impure doctrines.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정말 주인이 쓰기에 적당한 귀한 그릇일까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불결하고 이상한 교리로부터 멀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과도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1 절을 보겠습니다.

If a man will purge himself from these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21),

These what I often call sterile doctrines. You say, well, nothing's really wrong with that. Sounds a little weird but doesn't hurt anybody. Oh yes it does. So often there are doctrines that are being promulgated that the effect of the doctrine is sterilization. When you start to embrace it, it sterilizes you so that you are no longer fruitful, doctrines that get the people all introspective, all into themselves.

이러한 것들을 나는 빈번히 쓸모없는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뭐 실제로 그것에 잘못 된 것이 없고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찌 모르겠습니다. 오, 그것은 해를 끼칩니다. 빈번히 어떤 가르침이 발표되고 그후에 그 가르침은 성과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불임중에 걸리게 하여 열매를 생산할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보통 자기 내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Demon, demon, who's got the demon? You know, and they have these parlor games where they cast the demons out of each other, lust and gluttony and lethargy and all of these demons that are hovering around and possessing the believers, you know. So we're going to have a casting-out party tonight. Come on over, we're going to cast demons out. And so a person yawns and says, Oh oh, did you see him yawn? We'd better cast the demon of sleepiness out of him. And if you burp, man, hands are laid on you, even the gluttony demon has to go. Purge yourself from these things. They're not profitable. Purge yourself from these things.

귀신,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서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담화실 게임도 합니다. 정욕과 탐식과 무기력함과 같은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다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신 쫓는 시간을 갖을 테니 꼭 오십시오. 다같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아, 지금 이 형제님이 하품하는 것 보셨습니까? 졸음귀신을 내쫓아야겠군요.” 또 어떤 사람이 트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탐식의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기 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부터 자신을 멀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것을 제하십시오.

And you will be a vessel unto honour, sanctified (2:21),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2:21),

That is, God will set you apart. God will anoint you and you will be fit for the Master's use, then God will begin to use you. And that really is what it's all about isn't it; to be used of God to touch some life, to be used of God to share His love, to be used of God as an instrument. That's what life is all about.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지 조사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할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1 절 하반절말씀입니다.

fit for the master's use, as He prepares us unto every good work (2:21).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1).

God begins to prepare you through the word, through prayer, through your experiences; they're all a part of God's necessary preparation. Paul wrote to the Ephesians and said, "You are His workmanship," God's working in you. Created together unto, created together unto Christ Jesus. No, "created together in

Christ Jesus unto the good works that God has before ordained that you should accomplish” (Ephesians 2:10). God has already foreordained that service that He wants you to accomplish for His glory, but He has to, first of all, work in you, preparing you.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엡 2:10).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해야 할 봉사를 위하여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So the experiences that I go through, the hardships, the difficulties, the testings, the trials, the sorrows; they’re all a part of God’s necessary preparation. As He is seeking to prepare the vessel to be used by the Master, as He empties me of myself, that He might fill me with His fullness that I no longer live for my own glory but I live now for His glory. That I serve Him in such a way that it brings glory to Him.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hew 5:16). “Prepared unto every good work.”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볼 때, 내가 겪었던 경험과 고생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과 슬픔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주인이 쓰시도록 그릇들을 준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비우심은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드러지도록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22 절,

Flee also [Timothy] youthful lusts (2: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22);

How many have been injured, destroyed because of youthful lusts? Flee them. Great example is that of Joseph as he was serving in the house of Potiphar. And the wife of Potiphar fell in love with him, sought to entice him to come into her bedchamber, daily was flirting, enticing. Until finally one day, when the rest of the servants were out, she grabbed hold of him, want to force him into the bed, and he wriggled free leaving his coat in her hand. And he ran out naked, fleeing youthful lusts. Smartest thing he could do. There are some times when the wisest thing you can do is run. “Flee youthful lusts:”

청년의 정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파멸했습니까? 그것들을 피하십시오. 좋은 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연정을 느끼자 그를 자기 침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침내 어느날 모든 하인들이 나가고 없을 때, 그녀는 그를 붙잡고 자기 침대로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다 그녀의 손에 자기 걸옷을 남기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쳐 청년의 정욕을 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총명한 처사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22 절,

but follow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with those that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2:22).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22).

And so those that are calling from a pure heart. What are the thing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그 특성들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23 절,

But foolish and unlearned questions avoid, knowing that they are only designed
to create strifes (2: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23).

There are a lot of lead questions that are only designed to create an argument. A person has a position that they want to espouse and so they come to you with a question. Why don't you baptize people immediately when they're saved? You see, they believe that a person really isn't saved until he's baptized. They want to get into an argument with you over baptism. Now he said avoid these questions. All they are intended to do is create strife. They're not really wanting to learn, they're only wanting an argument. They want to get in a fight

논쟁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기를 원하는 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질문을 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 받자마자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사람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침례에 대하여 논쟁을 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시비하자는 것이니 참으로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논쟁하기를 원하며 싸우려고 할뿐입니다.

The servant of the Lord must not strive (2:2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2:24);

Mustn't get into these arguments.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but be gentle unto all men, and apt to teach, and patient (2:24),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24),

Ready to teach but you got to be patient because in a great house, there are all kinds of vessels.

기억하십시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기에 앞서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25 절

*In meekness instructing those that oppose themselves; if God peradventure will give them
repentance unto the acknowledging of the truth (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1:25);

So you hope that God will work. You take your time. You're patient. You teach, teaching in meekness and just hoping that peradventure their hearts will be opened, that they might turn to the truth.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 어찌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 것이니까요.

And that they may recover themselves out of the snare of the devil, who are taken captive by him at his will (2:26).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좃게 하실까 함이라 (2:26).

Oh, what an important verse. This verse teaches us that there are certain people who have been taken captive by Satan. They are bound by Satan, they are his captives. Now we have the power, the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to deliver them from the captivity of the enemy, those who Satan holds, he holds by usurped power. You see, Jesus died for all men.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That work of redemption was complete for all mankind. It covered every man's sin. Jesus redeemed the world back to God; however, Satan is still holding captive many people. But that hold that he has is a usurped authority that he has taken, but as long as the people are consenting to it, they remain his captives. And they consent to it because he has blinded their eyes to the truth of their own condition.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그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강압적으로 빼앗아 붙들고 있는, 즉 원수에게 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속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지만, 사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쥐고 있는 강탈한 권세는 사람들이 그의 감옥에 있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에 동의하는 동안만 실효를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진실에 대해 눈이 가리워진 자들 이기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Paul said "the god of this world having blinded their eyes that they cannot see the truth" (2 Corinthians 4:4). So what a sad predicament the unbeliever is in as he is bound by Satan, a captive of Satan, but his eyes are blind so that he doesn't even realize the truth of his own condition. He doesn't know how precarious is his position for Satan has blinded his eyes. He's prejudiced against the Lord. Satan has blinded his eyes concerning the truth in Christ Jesus. Oh, I don't believe the Bible, all kinds of contradiction all in it. You hear that all the time.

바울은 고린도 후서 4 장 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고후 4:4). 믿지 않는 이들이 진리에 대해 눈이 가리워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단의 포로로 그에게 매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반대하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아, 난 성경을 안 믿어, 그 안에 있는것은 모순 투성이야.'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I always say show me one. Oh well, there are lots of them. Well then, show me one. Oh it's filled with them, you know. I don't have to. It's full of them, you know. Well, tell me one. I heard someone say that one tim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ir eyes; they can't see the truth. Sad place to be that we might take them from the captivity. Is it possible that we can take them from the captivity?

나는 항상 하나만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모순을 하나만 보여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지만, 나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는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포로된 그들을 끌어내야할 슬픈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 감옥으로 부터 끌어낼 수 있을 까요?

Jesus sai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John 8:32). We can in love teaching them, instructing them, bring them the truth which can set them free. We can through prayer open their eyes to see the truth. We can bind that work of Satan that is blinding their eyes, that is keeping them from knowing the truth and we can deliver them from this captivity. Surely we ought to be engaged in this warfare. Enduring hardness as a good soldier. Getting out in the trenches. Fighting against the enemy. Delivering these who he has taken captive. Setting them free through the truth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8 장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요 8:32).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알려 줄수 있으며 또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로 그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가려진 눈이 진리를

향해 열리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의 눈을 가렸던 사단의 일을 묶을수도 있고그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며 적진을 뚫고 그들과 싸우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내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Vessels of honor used by the master to bring His love and grace to a needy world around us. God help us.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릇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함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Jesus, we thank You tonight for Your word, for Your help, for Your strength. And now, Lord,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our hearts richly through faith, that we being rooted and grounded may be able to comprehend more fully what is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depth and the heigh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for us. And Lord, we wish tonight to present our bodies to You, as living sacrifices, yielding to You our hands, our mouths, our feet, that You might use them, Lor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bring Your love to a dying world. In Jesus' name, Amen.

예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도움 그리고 강건케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물러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운데 뿌리를 내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충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richly bless you, fill you with His love and with His word and with His truth, guide you in all things. Make this a glorious week as we begin it in the word, founded on the truth. May you grow up in Christ, maturing and growing and developing until the life is being used by the Master in a great way, bringing glory and pleasure to Him. In Jesus' name.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게 축복하시되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사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주간에 시작한 말씀공부가 진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발전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Second Timothy chapter three? Paul said to Timothy,
이제 디모데 후서 3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절입니다.

This know also, that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3: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1).

It is interesting that the Scriptures in many places speak of the last days and in every case where the Scriptures speak of the last days, you find that it is an apt description of the day and the age in which we live. And so Paul is warning Timothy of certain things that will be transpiring in the last days. And as we go down the list, it's like reading the afternoon newspaper. "Perilous times shall come." The cause of the perilous times are found in the things that people will be doing, and at the top of the list,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 그것은 마치 매일 조간 신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하게 될, 위에 있는 항목의 내용에서 볼수 있습니다. 2 절

Men will be lovers of their own selves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3:2),

Have you ever seen an age when people were more conscious of their own selves? Everything today is, you know, for the body beautiful. The emphasis of so many people is just on being beautiful, lovers of themselves. Narcissism is at an all-time peak, but with lovers of yourself comes,

사람들이 오늘 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도취증은 정상에 이르렀고 자신 만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covetousness (3:2),

돈을 사랑하며(3:2),

That desire for more. For after all, I'm worth it. You know, I mean, talk about lovers of selves, look at the advertising. Oh I know it costs more but...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자랑을 하면서 광고합니다. "오, 그게 비싸긴 하지만 나는 그걸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2 절을 계속합니다.

Boasters, proud, blasphemers, disobedient to parents, unthankful, unholy
(3:2),

자궁하며 교만하며 궤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2),

Each one of these words in the Greek is an interesting word study. We don't have the time to devote to it this evening but I would suggest that you get a good Greek lexicon and do a word study on these particular Greek words that Paul uses to describe the attitudes and the actions of people in the last days.

여기에 있는 각 단어들을 헬라어로 공부하면 재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하여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용한 특수한 그리스 단어를 공부해 보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절,

Without natural affection (3:3),

무정하며 (3:3),

As I read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our modern-cultured Orange County, as I read the reports from the social department on the child abuse, I just shake my head in disbelief because a person could not possibly do these things unless they were without natural affection. There is just a certain natural love that would keep people from doing a lot of the things they are doing today. All you can say is that they are "without natural affection".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난 아동착취에 관한 기사를 사회 복지부의 보고서에서 읽을때, 나는 사람이 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오늘 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것은 오직 자연적인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말할수 있는것은 그 사람들은 "인정 머리도 없어" 라는 말 뿐입니다.

God has put in our heart a certain natural love as a parent for a child. There is instinctively, I think, within persons that love of a parent for a child or an adult for the child because we realize the helplessness of a child, the dependency that they have. And for a person to take advantage of a child is unthinkable. And yet, it is becoming in this hedonistic society commonplace, all too commonplace, tragically commonplace.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일이며, 너무 평범해져서 비극적으로 평범하게 받아들이게 까지 되었습니다.

I am reminded of the prophet of God who spoke concerning Israel, and he said, "They have sown the wind, and now they must reap the whirlwind" (Hosea 8:7). I'm afraid that that is also true of us. We have sown the wind, now we're going to reap the whirlwind.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는 말씀입니다 (호 8:7). 두렵건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바람을 심었으므로, 이제 광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3 절,

Trucebreakers (3:3),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3:3),

How many people who have stood before God and have pledged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for poorer, in sickness and in health, to love and to cherish, until death do us part; and yet again, the high divorce rate. “Trucebreakers”. You’ve made a covenant and there are so many broken covenants. Some of you here are victims of broken covenants. Some of you are separated not by your own desire or wish, but because someone was a trucebreaker. They did not keep the covenant that they made. Again, it is startling. How appropriate that “trucebreakers” is for this da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 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언약을 했지만 깨어진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중에 어떤 분들은 깨어진 언약의 희생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소망에 상관없이 누군가 원통함을 풀지 않음으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3 절을 계속 봅니다.

false accusers, incontinent (3:3),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3:3),

That is, without any sexual restraints. Boy, I’ll tell you, I don’t know. Living here almost in a Sodom-Gomorra atmosphere and environment. My wife and I eat out quite a bit. We usually try to avoid it on Friday evening if we can, but sometimes our schedules are such that we just don’t have time to. She doesn’t have the time to prepare the meal on Friday evening and we’ll go out on Friday night. But I can’t believe what I see in some of these restaurants over here in the Irvine industrial business center. Friday evenings, you know, everybody out looking for their weekend companion, incontinent, no sexual restraints.

요즘에는 성도덕이 대단히 문란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의 외식을 자주 합니다. 통상 금요일저녁은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하면 금요일이라도 외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근처 식당에 가면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너도 나도 이 주말을 즐길 성적 파트너를 고르러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4 절

fierce, despisers of those that are good, traitors, heady, highminded, [and then] lovers of pleasure more than lovers of God (3:3-4);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3:3-4);

The pleasure mania of the United States. We've just experienced a tremendous demonstration of that in the Los Angeles basin in the last couple of weeks. The numbers of people who flocked to the various athletic contests, loving pleasure. Now, there's nothing wrong with enjoying life. I believe God intended that you should enjoy life.

미국의 쾌락주의자들이 지난 두 주 동안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참으로 기막힌 데모를 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각종 운동 대회의 선수들이었으며 쾌락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물론 삶을 즐기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즐기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having pleasure. I believe that God intended you to have pleasure, but when it comes before God, it means that it has become your God and it makes a very poor God to worship or serve. Good to have pleasure but don't make it your God. They love pleasure more than they love God; that's the indictment. It has become their God and thus, they are guilty as those in the Old Testament who were worshipping Mammon, who, or rather Molech who was the god of pleasure. "Lovers of pleasure more than lovers of God."

즐거움을 가지는것 그 자체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며, 그렇게 되면 그 빈약한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약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또 쾌락의 신 몰렉을 섬겼으므로 정죄를 받게 된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5 절에

Having a form of godliness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3:5),

They still, you know, pay their respects.

그들은 여전히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7 절까지 읽습니다.

but they deny the power thereof: [Paul said to Timothy] from such turn away. For of this sort are they which creep into houses, and lead captive silly women laden with sins, and led away with divers lusts, ever learning, and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3:5-7).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3:5-7).

So the Greek word that is used here to describe these that are going around, leading captive the silly women, is the same Greek word that was used to describe quackery, and that's probably they're quacks, Paul is saying. The kind of guys that went around selling snake oil or cure-alls, deceiving, defrauding people.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란 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는 엉터리 치료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기꾼을 묘사하는 헬라이어 단어와 똑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뱀 기름이나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팔려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8 절

Now as Jannes and Jambres withstood Moses, so do these also resist the truth: they are men of corrupt minds,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3:8).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3:8).

Now when Moses appeared before Pharaoh and he threw down his rod and it turned into a snake, you'll remember that Pharaoh's magicians threw down their rods and they also became snakes, but Moses' snake swallowed theirs. Jannes and Jambres were the names of the two magicians that withstood Moses. Now this is not given to us in the Scriptures but there are other, what are known as apocryphal books, in which these two fellows are named. And that is, it doesn't tell us in the Scripture in Exodus that that was their names but Paul gives us their names here, Jannes and Jambres who withstood the truth. And they were able to imitate the workings of God up to a point and then they came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backed down by Moses, but "men of corrupt minds, they are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그의 지팡이를 던져 그것이 뱀이 되었을때, 바로의 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으로 변했으나 모세의 뱀이 그들을 삼켜 버린것을 기억하실줄 믿습니다. 안네와 얌브레는 모세에게 대항했던 두 술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울은 여기에 진리를 대적했던 안네와 얌브레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후퇴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 이었습니다.

The Bible tells about God giving people over to reprobate minds, men who resist God and the truth of God. Their minds become corrupted and they ultimately become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I watch very little, but with horror and dismay, the deterioration of a man who probably at one time had a legitimate ministry, but I've seen the gradual erosion of this person on television just right before my eyes. Still the man has become crude, blasphemous, ranting and raving, a disgrace to Jesus Christ who said, "By this sign sh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4). And there's such a complete, total absence of love. The thing that amazes me is that he can attract people who will support him. "Men of corrupt minds."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진리를 대적 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했고 중국엔 믿음에 관하여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나는 거의 TV 를 보지 않는 편인데, 한때는 아마 합법적인 사역을 했던것 같은 사람의 타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라고는 한번쯤이나 했을, 이 파렴치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서서히 악화되어 가는 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불경스럽고 교양 없는 말로 호통을 치던가 아니면 과장된 흥분으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는 여전히 불경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헛소리를 하여 망신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그러한 " 마음이 부패한 자" 인 그에게 이끌려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역겨웠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헌금하려는 사람들에게 흠뻑 빠져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The Lord said it's "w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a man, that defiles a man" (Matthew 15:11).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Matthew 12:34). When a man's language becomes filthy, obscene and crude, it shows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마태복음 15 장 11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 장 34 절에 보면 '□□ □□□ □□□ □□ □□□ □□□□' 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더럽고 음란하며 거칠어 질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 입니다.

But [Paul said] they shall proceed no further: for their folly shall be manifest unto all men, as [Jannes and Jambres] also were (3:9).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 임이니라 (3:9).

In other words, you may go along for a while, but ultimately it's going to catch up with you. You may be able to deceive people for a while, but ultimately, it's going to catch up, even as it did with Jannes. And there came that place where, hey, Moses performed a miracle of God and they backed away. They said, Wait a minute, this is the hand of God, we can't, we can't touch this. And so there comes that point where they will proceed no further: "their folly becomes manifest to all men", as Jannes and Jambres also was. Jambres.

바꾸어 말하자면,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속일수 있겠지만 결국은 들통이 날것입니다. 심지어 얀네도 그러했습니다. 얀네와 암브로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던 그 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아이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손이네. 우리는 이것에 감히 손도 댈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계속할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것은, 얀네와 암브로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것입니다.

But thou hast fully known (3:10)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3:10)

Now in contrast to this, boy, and what a contrast the Christian is to the world around him, and more and more, you know, more and more your lifestyle is different from the world. More and more the Christian is a marked person because the more corrupt the world becomes, the more

the Christian stands out. The more the person who lives godly and righteous in Christ stands out. And so Paul said to Timothy, “You have fully known”

이제 그리스도 인들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들의 삶이 세상과 대조되며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부패해 지므로 그리스도인 들은 더욱 눈에 띄게 되고 겉으로도 또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안에서 더욱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모든 것을 알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10 절과 11 절입니다.

my doctrine, and my manner of life, my purpose, my faith, my longsuffering, my love, and my patience, [you know the] persecutions, and the afflictions, which came unto me at Antioch, and Iconium, and Lystra; what persecutions I endured: but out of them all the Lord delivered me (3:10-11).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꾀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일과 어떠한 꾀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3:10-11).

Timothy was from Lystra. Paul met him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At that time Timothy was just a very young boy, probably in his mid-teens and yet he was attracted to Paul the apostle because of the message that Paul bore. Timothy had been schooled in the Scriptures from his early youth by his mother and grandmother, and so as Paul began to, with the Scriptures, pro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with Timothy’s background, he could see the truth of it. And he embraced Christianity, but he was probably standing there in Lystra when the people in the city stoned Paul until they thought he was dead an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he was probably in the company of those that were standing around, sort of crying, as they saw Paul’s limp body on the ground. And suddenly, of course, their tears were changed because Paul began to breathe and move and he stood up and he said, Let’s go back in and preach some more.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첫번째 선교 여행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는 겨우 청소년기에 있는 10 대 중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교육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토대로 예수가 참 메시아였음을 증거할 때, 그의 이러한 교육배경은 이 말이 진리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급히 도시 밖으로 끌어 내었을때 아마 디모데는 그곳에 서 있었던것 같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서 있던 디모데는 소리 없이 울며 바닥에 힘없이 늘어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다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자,,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물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Paul said, you know, what kind of a life I’ve lived. You know the persecutions that I experienced, but the Lord delivered me out of them all.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but the Lord delivereth him out of them all” (Psalm 34:19). Paul’s life contrasted with the world. Christian life is a life of purpose. The world just exists, no real goal, no real meaning; you’re just existing. Paul’s life: one of faith. Paul’s life: one of longsuffering, one of love and one of patience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떤 핍박을 경험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 34:19). 바울의 삶은 세상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하지만, 참 목적은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한가지 믿음으로 지속해온 바울의 인생,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어온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Now you'd think that the world would treat a person like that very cordially. It is interesting, when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described the Christian in the Beatitudes, after having described the traits of the Christian in the Beatitudes; you'd say, My, a man like that who is a peacemaker, who is merciful, who is hungering and thirsting after righteousness, who is meek, who is poor in spirit, surely you know the world would respect such a man. But after giving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the godly man, Jesus then in the final Beatitudes said,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persecute you, and revile you,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Matthew 5:11).

이제 우리는 세상이 선호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인의 팔 복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팔 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화평케 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 의로움에 배고프고 목마르며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관해 설명하시고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끝에 덧붙이시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 장 11 절) 고 하셨습니다.

The world really doesn't admire true Christian traits. Why? Because the true child of God brings the worldly person under conviction. They just are irritated by your love and by your patience and by your goodness because they feel guilty. Look what they did to Jesus, and Jesus said, “If they persecuted me, they're going to persecute you” (John 15:20). Don't expect the world to admire your godly stance. Don't expect the world to applaud when you speak out against evil. They'll say, crucify him, rather than applaud.

이 세상은 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인내와 선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15 장 20 절). 세상이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을 칭찬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것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박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박수를 보내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And so Paul, you know how I've lived; my faith, my longsuffering, my love, my patience, and the persecutions and afflictions that came to me.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고난과, 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내게 닥쳐온 핍박과 고난을 네가 아나니.. 12 절을 봅시다.

Yea And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3:12).

□□ □□□□ □□ □□□ □□□□ □□□ □□ □□ □□□ □□□□ (3:12).

One of my most unfavorable promises in the Bible.

이것은 내가 성경에서 가장 즐겨하지 않는 약속중의 하나입니다.

Quite a promise, isn't it? I've never found that in one of those little Bible promise books, I mean, promise things yet. That's not the kind of promises we really enjoy, is it? "My God shall supply all of your needs" (Philippians 4:19). Oh, yeah, I like that one. "They that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You're in an alien world. You're a stranger. You're a pilgrim. This world is in rebellion against God. And if you align your life with God, you're going to find yourself out of alignment with the world and persecution will come.

정말 부담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것을 성경의 약속만 적어 놓은 책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전혀 반가워 할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 □□□□ □□□□ □□ □□□ □□ □□□ □ □□□□□ □□ □□ □ □□ □□□□□" (빌 4:19). 이 약속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좇아 살면, 여러분은 세상과 역행된 삶을 살게되며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Beloved, consider it not strange concerning the fiery trials which are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s happened to you" (1 Peter 4:12). So don't expect the world to speak well of you or to applaud you for your living a godly life and taking a righteous stand.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사□□□ □□□ □□□ □□ □□□ □□ □ 시□□ □□□ □ □□□ □□ □□□ □□□ □□” 라고 했습니다 (벧전 4: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의에 견고히 서려는 것에 대해 박수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

But evil men and seducers shall wax worse and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3: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3:13).

In other words, it's not going to get better for awhile. It's going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It will be getting better a little further down the road, but evil days are going to wax worse and worse, until the Lord takes His church out and then God judges the world for its unrighteousness and ungodliness. And then Jesus will come and establish God's righteous

kingdom, but by then, those that will remain will be saying, Oh, God help us. “Blessed is he who will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Psalm 118:26). I mean, people will have had it with the unrighteousness of the worl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26). □□□□
□상의 불의로 □□□ □□□ □□□□.

Look at the rapid deterioration of our society. You can you see what’s happened even in the last twenty-five years. Look at the magazines that were once really under the counter kind of stuff and sold illegally. Now they’re right out where little kids can go in and pick them up and leaf through them. Look at our attitudes towards morality. Look at the lack, lackness. Look at, of course, all of these other things that have come along as the result of it. The deterioration, rapid deterioration so that a mother has to worry when she sends her little child to school because she doesn’t know what some kinky character might do, exposing themselves to that beautiful little child or even worse. God help us. If the Lord doesn’t come soon, we’re going to destroy ourselves as we just sink in the filth. We’re going to drown in our own corruption. “Evil men and seducers will wax worse and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I think we’ve gone just about as far as we can. I think the next major event, Revelation 4:1.

우리의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지난 25 년 안에 일어난 일들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부정거래나 불법으로 거래 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어디서나 버젓이 판매됨으로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거리낌없이 집어서 들춰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덕관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다른 것들을 주시하십시오. 어머니가 자신의 예쁘고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괴상한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야할 정도로 급격하게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부패와 타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자신을 과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으니깐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지난것 같으며 이 다음에 일어날 큰 사건은 계시록 4 장 1 절에 있는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continue thou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hast been assured of, knowing of whom thou hast learned them; and that from a child thou hast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thee wise unto salvation through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3:14–1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14-15).

Now it is interesting that as Paul is referring to the Scriptures here, he is, of course, referring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e New Testament had not yet been canonized. So he's referring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ose which Timothy knew from the child and he called them the "holy scriptures," which they are, "and they are able to make you wise unto salvation through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In other words, there is within the Old Testament so much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you should logically be led to Jesus Christ.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성경을 언급한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약성경은 아직 정경으로 받아드려 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성경이라고 불렀던 구약성경을 말하며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됩니다.

Jesus said, "You do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in them you think you have life; but actually, they are testifying of me" (John 5:39). Again he said, "Lo, I have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to do thy will, O God" (Hebrews 10:7). The volume of the book, the Old Testament, it's all about Jesus Christ. The whole concept of redemption is wrapped up in the Old Testament. The promise of the Messiah, the details of the Messiah, they are all there. And Paul said, You've known the Holy Scriptures, able to bring you to a faith in Jesus Christ, salvation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요한복음 5 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라고 말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 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 10:7)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구약성경에 싸여 있으며,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이미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3:16),

Not as some would lead you to believe, some scriptures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as we pointed out, the danger always of saying some scriptures, not all scriptures, is the loss of authority. And when you lose authority you have anarchy. Every man going his own way. Every man doing his own thing or every man believing as he wants. You have no authority.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은 권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상실할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뜻대로 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겐 권위가 없습니다.

So if I tell you that some scriptures are not really inspired of God, then I become the authority, not the Bible anymore, because you can't just read the whole Bible and trust it because not all of it is inspired. So I become the authority if I make such an affirmation to you. And I will tell you what scriptures are inspired and which ones aren't. Now you get out your, you know, your green and blue pens and for the inspired ones, we'll underline those with blue and we'll use red, maybe, to underline those that are not inspired, you know and, and so here I am, I'm the authority.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권위가 아니라 내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니 성경 전체를 읽을 수도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준다면 내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밑줄을 치느라 가지고 있던 녹색이나 빨간색 펜을 꺼내세요. 초록색과 파란 색으로 영감 받은 것에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 받지 않은 것은 빨간 색갈로 밑줄을 칠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있는 내가 곧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Well, the next liberal comes along and he says, Well, no, no, no, he was wrong on that one. He said that one isn't inspired; obviously inspired. He was wrong on that you know. Get out your pen and take out the red, put the blue one. Well soon your Bible will be so messed up you wouldn't be able to read it. And why read them anyhow if they're not inspired?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자, 그 때 옆에 있던 어떤 자유 신학자가 오더니, 말합니다. “아니, 아니 저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영감을 받은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틀린거예요. 펜을 꺼내서 빨간 색갈을 지우고 파란 색갈로 하세요. 얼마 안가서 여러분의 성경은 지저분해져서 읽을 수가 없을것입니다.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왜 그걸 전부 읽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Don't start messing with it. Don't start trying to cut out certain stories because they don't fit your scheme because you have a little hard, you have a hard time sort of believing that. Story of Jonah has provoked a lot of problems for people, only because of their concept of God. If you can read and buy the first verse of the Bible, you should have no problem with the rest of the Bible. If your God is big enough to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no problem, but you see, we stumble on the very first verse. And that's what creates the problem all the way through. Our God is much too small. “And God prepared a great fish and it swallowed Jonah” (Jonah 1:17). Do you have a hard time with that?

그것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내버리는 일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맨 첫번째 구절을 읽고 받아 드릴수 있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등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광대하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첫번째 구절에서부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 장 17 절) 그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And man has prepared a great fish and they powered it with atomic engines. And a hundred and fifty men can board it and they can submerge and go under the North Pole under the arctic ice. And come up a hundred days later and be deposited at a port. Do you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at man can build a great fish that can swallow men and keep them under water for several days and deposit them later at a port?

오늘날의 인간은 아주 거대한 물고기(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약 150 명의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엔진을 구동하여 잠수도 하고 빙하를 거쳐 북극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 백일이 지난 후에 물위로 올라와 항구에 정착하지요. 여러분은 인간이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채로 물 밑에서 수 십일을 머물다 나중에 사람들을 토해 낸다는 것을 믿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Hey, hey, wait a minute then. How big is your God? Man can do it but not God. Would you find it easier if it, if the account said, And a submarine surfaced and the captain got out on deck and, you know, they hauled Jonah in and they submerged again and headed towards Joppa and let him off the port. But you see, if you start whacking away at the story of Jonah, and say, oh, I can't really buy that. Wow, watch out now because Jesus bought it.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할수 없나 보군요. 그럼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한 잠수함이 물으로 드러나고 선장이 갑판에 올라, 요나를 끌어올려서 잠수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간후 옴바를 향해 간 다음, 그를 항구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오, 난 그걸 믿을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아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도 그걸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One day they said to Jesus, Show us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Matthew 12:38-40). Oh, Jesus, you mean you believe that story? Didn't you know that's just a myth? That's just fable. How is it that you could be deceived, Jesus? I thought you were, you know, the Son of God and smarter than that.

어느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표적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했다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38-40). “아. 예수님, 요나의 이야기를 믿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그저 신화라는 걸 아직 모르시나 보죠? 그건 그저 우화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깜빡 속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보다 더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요.”

Noah, the earth was really flooded? Noah escaped? Jesus said,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Luke 17:26). Confirmed that Noah was a real person and it was a real event. So you have to be careful when you start chipping it away at one side because the whole thing will come down on you.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노아의 시대에, 정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까요? 노아는 피했다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26). 노아도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며 대 홍수 사건도 실제 일어난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쪽을 깎아 내릴때 주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여러분을 돌연히 공격할수 있으니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Now when you have difficulty in your understanding of a scripture, rather than setting that aside and saying, Well, God really didn't say that; just say, hey, I really don't understand that yet. I have many scriptures that I don't understand yet. I've got a file up here that says, Wait for further information. And I filed many scriptures in that file. Now I'm not about to say God was wrong. I'm just saying, Hey, I am stupid and I lack an understanding. God is right. I don't know exactly yet what He said but when I find out I know He's going to be right. For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한 쪽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걸 말씀하신게 아닐거야”라고 말할것이 아니라, “난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겐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정보를 더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파일 안에 더 많은 성경의 문제들을 파일을 만들어 정리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둔하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직 까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보게 될것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입니다.” 16 절을 봅니다.

and [as such they are] profitable (3:16)

유익하니 (3:16)

And how profitable is the word of God to us today! What a blessing. They're profitable.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말씀은 유익합니다. 16 절을 계속합니다.

for doctrine (3:16),

교훈과 (3:16),

What am I to believe about God? What am I to believe about man? What am I to believe about sin? What am I to believe about angels or the future? Or life, or death, or life after death? The scriptures are profitabl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my beliefs. They're profitable for doctrine. I can base my beliefs upon what God has said because it is indeed God's word.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사람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죄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또 나는 천사들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인생,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인생은요? 성경은 나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정말 유익합니다. 교훈도 유익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 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great difficulty with these people who develop doctrines that are contrary to what Jesus said, as though they understand more than Jesus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future. The Jehovah Witnesses seeking to develop their doctrine concerning hell and that it is a place of oblivion, no consciousness, no awareness. And they use the book of Job as their proof text. When Job was talking to his friends and they were talking to him about the future, and Job said, Oh, I wish I were dead. It would all be over, where, you know, the miseries would all be gone.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대이론을 내세우는 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대단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곳은 망각의 장소이며 지옥에선 의식도 지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옳기를 자신들의 이론을 증거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옳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옳에게 미래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하길,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났었더라면.”하고 한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What's the first thing God said to Job? When God came on the scene and entered the conversation with his friends? He said, Who is this? Who is talking all these words without knowledge? Job, tell me, have you been beyond the gates of death, do you know what it's about? Well, Jesus has and He told us what to, what it's about in Luke, the sixteenth chapter. Now are you going to, you know, take the word of Jesus? Or are you going to develop a doctrine that is diametrically opposed to what Jesus said? The word of God is the foundation for doctrine. What I believe, I believe because God has said it. And my full doctrinal concepts are premised upon the scriptures. God said it.

옳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번째 답변은 무엇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옳의 친구들과 대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지식이 없이 이 모든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옳, 너 죽음의 문턱을 넘어 가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16 장에서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론을 전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체적인 교리의 개념은 성경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y are profitable

그것들은 유익하다고 했고,

for reproof, for correction (3:16),

책망과 바르게 하기위한것 (3:16),

And how often the word of God has brought correction to my course of life. Easy it seems to get sort of distracted and off course. And the word of God comes and it brings a balance, it brings a correction, it brings a correct perspective.

주의가 산만해 지고 정로를 벗어나기가 아주 쉬운데 주의 말씀이 항상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잡아 주고, 옳게 가르쳐 주며 또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해 줍니다.

16 절 마지막 부분,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3:16):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16);

And righteousness is just actually the act of being right or doing right or living right. It's instructing you on the right kind of life.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It's instructing us in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실제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지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의로 가르쳐 줍니다.

17 절 상반절,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3:17),

And the word perfect of course is always that of completeness. God wants you to be complete. The Greek word literally is fully matured or of full age, fully matured, that the man of God might be fully matured.

‘온전한’이란 단어는 항상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해 지길 원하시지요. 그리스말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완전히 성숙한’ 혹은 ‘나이가 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17 절 하반절을 계속 봅시다.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3:17).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3:17).

In other words, the word of God is that which thoroughly prepares me for any work that God might have for me to do. Now many people have a legitimate and proper desire to be used of God. Oh God, I want you to use my life. Good. That's proper and you should have that desire. But God prepares the instruments through which He works and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is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is where you become thoroughly equipped to do the work that God has designed and ordained for you. So if you want God to use your life, then thoroughly equip yourself in the Word of God, the study, the understanding.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생애를 사용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설계하고 정해 놓은 일을 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That's why we're here tonight. Just to go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plodding right straight through the word of God. The whole idea is that of thoroughly fitting you as an instrument that God can use. And you will find as God's word becomes a very part of your life and you begin to be guided by the word of God, that God will begin to use you in very exciting ways. But we, so often, make the mistake of going out ill-equipped or running without a message. So God's word, scripture given for inspiration, by the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바르게 나아 갑시다. 이 전체적인 생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서 빈틈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말씀도 없이 그저 사역에

뛰어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Of course, this morning we pointed out that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is proved by internal evidences, such as its total accuracy with known facts of science, when it happened to cover scientific subjects. Now though it is infallible, inerrant and inspired, I did make a mistake in my message this morning on the speed of Arcturus; it's twelve thousand miles a second, I think I said twelve million. It's twelve thousand miles a second, but that's pretty fast, too. So you see, I'm not inerrant in all, but the scriptures are.

물론, 오늘 아침 우리가 지적했던 성경의 영감설은 과학적인 주제도 포함될 때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 성경의 전체적인 정확성과 같은 내재적 증거들로 입증됩니다. 성경이 과오가 조금도 없고 틀림이 없이 영감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대각성의 속도에 관해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초에 만 이천 마일을 천 이백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르다고 말한 셈이죠. 나는 이렇게 모든 일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Chapter 4

Paul said to Timothy,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I charge thee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4:1),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4:1),

Hey, that's heavy duty, man, when you charge a person before God an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Laying a charge now on Timothy.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명령이 지금 디모데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4:1)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4:1),

Now the quick is an old English word, it means alive. Someone said in L.A. traffic there are two kinds: the quick and the dead. But the word means alive.

여기에 “빠른(quick)”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살아 있는(alive)”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로스엔젤레스에서 의 교통은 두 가지로 표현 되는데 “빠른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여기서 “빠른”이란 말은 “살아 있는”이란 뜻입니다. 1 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4:1);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4:1);

The Lord is going to judge those that are alive and those that are dead.

Now there will be two judgments. The one at His coming, His appearing, will be the judgment of those who have lived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The first thing that Jesus does when He comes again, according to Matthew’s gospel is He gathers together the nations for judgment and He will separate them as a shepherd separates his sheep from his goats. And He’ll put on His left hand and He said, you know,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I was hungry and you didn’t feed me. I was thirsty; you didn’t give me anything to drink. I was naked, you didn’t clothe me. I was, you know, sick and you didn’t visit me. In prison, you didn’t visit. Lord, when did we see you this way? Well, inasmuch as you did not do it to the least of these, you didn’t do it to me.

하나님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심판은 그가 오실때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대 환난시대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때 맨 먼저 행하실 일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것 같이 하여 갈라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주릴때에 너희가 먹을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때에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일을 보았나이까?” 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To those on His right hand,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inherit the kingdom that was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For when I was hungry, you fed me. Lord, when did we see you like that? Well, inasmuch as you did it unto the least of these, you did it to me. But the judgment, which will determine those who will be allowed to go into the Kingdom Age when Jesus is going to reign upon the earth for a thousand years; after the thousand years reign, then He will judge the dead. And all of the dead, small and great, will stand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of God and they will be judged out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in the books.

이제 그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 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에 그들이 묻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심판 때에 예수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왕국에 들어 갈 자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천년이 지난후에 주께서 죽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대소를 무론하고 모든 죽은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So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going to judge the alive and the dead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The two judgments. What does He charge Him?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까?

Preach the word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2);

Why?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at can change man. It is the word of God that can really inspire them and bring the changes, can cleanse a man. So preach the word.

왜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까? 사람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Oh, isn't it a shame that there is so littl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oday in the pulpits across the country? All kinds of preaching of psychology and all other kinds of things, but so little preaching of the word.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Jesus Christ, Timothy, preach the word." Paul said, "We preach not ourselves, but Christ crucified; and ourselves his ministers for your sake" (2 Corinthians 4:5). His servants. Preach the word.

전국적으로 오늘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게 전파하니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든 심리학과 다른 것들은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적게 전파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고린도 후서 4 장 5 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And then he said,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be instant in season, and out of season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4:2);

In other words, be ready to go. Sometimes you feel like it, sometimes you don't. Ready to go.

다른 말로 하면, 늘 준비 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전하고 싶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고가 아니라 늘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reprove (4:2),

경책하며 (4:2),

The word of God is profitable for reproof.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하는데 유익합니다.

rebuke, and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doctrine (4:2).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4:2).

2 절 하반절입니다.

Now Paul is emphasizing here, "Preach the word", and get the people indoctrinated in the basic foundational truths of God. "Preach the word".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4:3-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4:3-4).

You know, it is an interesting thing how that the Word of God seems to create an appetite for the Word of God, and it seems to spoil you for anything else. The Word of God is so exciting. There is so much there. It is so powerful, so dynamic that when you really are being taught the Word, and you really get into the meat, you begin to grow and be strengthened. You just can't be satisfied with these little, you know, beautiful days and butterflies and sparrow sermons, you know, everything is pleasant and the world is great.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그 맛이 다른 것에 대한 구미도 잃게 만든것 같아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격을 줍니다. 성경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다양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깊은 맛을 알때 여러분들은 자라기 시작하며 튼튼해집니다.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이제 여러분은 좋은 날씨라던가 나비나 참새같은 작은 설교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즐겁고 세계가 광대하지요.

So the time will come though, if the person doesn't have a diet of the Word of God, they get itching ears. Oh, he tells the greatest jokes, you know, man, the guy's a great storyteller and people have itching ears. They want to be entertained and churches have become really entertainment centers. I mean, they put on shows that will make Hollywood jealous. They want to be entertained. Itching ears desiring entertainment, turning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it opens them up to be gullible to listen to fables.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를 터인데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귀가 가려워 질것입니다. “그분은 배꼽 잡는 얘기를 많이 해 준대요. 오 그 사람은 이야기를 잘해서 사람들의 귀가 가렵대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즐거움을 갖기 원하고 교회들은 점점 오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쇼까지 집어 넣으면 할리웃이 시기하게 될 정도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가려운 귀는 유희를 바라고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려 우화를 듣도록 속이는 데 귀를 열어 놓습니다.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and endure afflictions, and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4: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4:5).

Now Paul was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 was also a pastor and a teacher. Timothy had the calling of an evangelist. Paul is encouraging him to preach and to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Now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area of ministry God has gifted you and called you to fulfill and that you be what God has called you to be, and not attempt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made you. Because the most difficult and frustrating thing in the world is to try to be an evangelist if God has made you a pastor-teacher or to try and be a pastor-teacher if God has made you an evangelist. You know, we've got to make 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We've got to know what God has called us to be.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또한 목사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사역의 영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영역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좌절감을 주는것은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만들었는데 전도자가 되려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이 목사와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해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라고 부르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The first sixteen years or so of my ministry was totally frustrating, as I sought to be Chuck an evangelist by the will of God. God didn't call me to be an evangelist. And my endeavors to do so were just totally frustrating and unfruitful. It was not until I really acknowledged and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God had called me as a pastor-teacher that the ministry began to be blessed, because now it's natural, now it's not forced. Now I can be what God has called me to be, comfortable with it, loving it.

내 목회 생활의 처음 16 년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자 척 스미스가 되려고 했을때 나는 좌절감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노력은 완전히 좌절감을 주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와 선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감을 느끼기까지는 열매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대로 되어질 때 편안함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to Timothy,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make full proof of your ministry.” So important that we make full proof of that ministry.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네 직무의 일을 다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사역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절을 보겠습니다.

For [Paul said]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4: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4:6)

Things were going bad for Paul in Rome. The trial is not looking good. He’s appeared for his preliminary hearings and he’s heard the charges and he has seen the attitude of the Roman government at this point, and Paul realizes his days are numbered. This is the last letter that Paul wrote, his letter, second epistle to Timothy, and he realizes that the handwriting is on the wall.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You see, with Paul he looked at death as only a departure on his journey. I’m going to move in a short while from this tent into a mansion.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로마에서 바울의 상황은 좋지못했고 재판도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심리를 위해 로마 정부에 출두했고 자신의 혐의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로마 정부의 태도도 보았으며 바울은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로서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로 그가 친필로 벽에 써 놓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그의 여행의 출발로 간주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후에 이 장막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1). 나의 출발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And then Paul said,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7),

Oh what an important thing to say when the time of departure gets close. And I look back at my life and I can say, Well, I fought a good fight. I gave up, you know, all I had and I have finished the course. Earlier Paul had written to the Philippians and he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of Jesus Christ,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this is what I’m doing,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I’m pressing towards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as I press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2–14). He saw the Christian life as a race.

출발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역시 내 인생을 뒤 돌아 보며, “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것을 다 드렸으며 나의 갈 길을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찌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좃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12-14).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경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ight obtain” (1 Corinthians 9:24). I've fought a good fight. I've been in there. I have finished now my course and I have kept the faith.

고린도 전서 9 장 에서 그는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린도전서 9:24).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So,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our righteous judge, shall give me at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unto all of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4:8).

We are told to wait for His appearing, to look for His appearing, and now Paul speaks about loving His appearing. The crown of righteousness, Jesus said to the church of Smyrna, “Be thou faithful unto death,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The various crowns of heaven, that crown of righteousness. The Lord our righteous judge shall give, not to me only but all those that love His appearing.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계시록 2 장에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10). 천국의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의의 재판장이제 그 때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나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하실 것입니다.

So do thy diligence to come shortly unto me (4: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9).

Hey, get here quick. I'm about to leav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So hurry, get here as quick as you can.

“이 보게, 빨리 이곳으로 와. 떠날 시간이 다 되어 난 곧 떠나려고하네. 빨리 서둘러서 가능항 대로 빨리 이리로 오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For Demas has forsaken me (4:10),

데마는 나를 버리고 (4:10),

Now Demas was joined with Paul in other of the salutations of his previous epistles, but Paul had said earlier that all of those of Asia had forsaken him. Actually, it probably would have meant their own death had they associated with Paul at this point of the trial, for he was a prisoner condemned to die and their association with him now would endanger their own lives. “So Demas has forsaken me.” Tragic because of the reason,

데마는 바울의 이전의 서신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안부하는 문장에 언급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 한데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러한 시점에 다다른 바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수도 있다는 뜻일찌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형을 받도록 정죄를 받은 사형수 였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함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마는 나를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having loved the present world, and is departed to Thessalonica (4:10);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4:10);

In other words, for his own skin, you know, wants to live on so he’s departed to Thessalonica.

다시 말해, 데마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신이 살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 간것입니다.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Titus to Dalmatia. Only Luke is with me. So take Mark (4:10–11),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4:10-11),

This is the Mark that was a nephew to Barnabas who created a fight between Paul and Barnabas earlier. When Paul and Barnabas left o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Mark went with them, but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Cyprus and were heading over to some rough country, Mark got scared and went home and Paul and Barnabas went on alone.

여기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전에 바울과 바나바간에 싸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브로를 지나 다른 거친 나라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때, 마가는 너무 공포를 느낀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Now as Paul and Barnabas were getting ready to take their second missionary journey, to go back into the same areas to strengthen the brethren that had been converted in their first journey, Barnabas said, Well, I want to take Mark with me again. And Paul said, Oh no, kid defected the last time, I don’t want to take him again. I don’t want problems. And so a big argument arose between Paul and Barnabas. The contention was so great that Barnabas took

Mark and headed on out for Cyprus and Paul took Silas and headed on back into Asia Minor again.

그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첫번째 선교 여행때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형제들을 영적으로 강건케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려고 이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을 제의했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제 길로 가버린 그를 다시 데려가지 않을것이며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너무 극심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를 향해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 아시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It is interesting now, though you know within the Christian body we can have differences and we have disagreements, but the Lord always brings us back. And now Paul writes of this same Mark that he had problems with earlier, wouldn't go along with Barnabas who wanted to take him.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볼때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일찌기 말쟁을 일으켰던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바나바가 주장하여 바울과 딴 길로 갔던 그 마가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o Timothy, "Take Mark,"

그가 디모테에게 말하기를 11 절,

and bring him with you: for he is profitable to me for the ministry (4:11).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4:11).

I like that young man. Of course, Mark had matured a lot by now, no doubt. Several years had gone by, but Paul speaks about him in loving terms as being profitable unto him and all.

나는 이 젊은 이를 좋아합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지금은 마가도 많이 성숙해졌음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랑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13 절,

And Tychicus have I sent to Ephesus. The cloak (that I left at Troas with Carpus, when you come, bring it with you, and also my books, but especially bring the parchments (4:13).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13).

Now Paul's dealing with just some, you know, very personal kind of things but, "the cloak

지금 바울은 몇 가지의 아주 개인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겹 옷을 가져 오라고 부탁드립니다.

Paul, it is said, was an avid reader. In fact, history, Gamaliel, Paul said he sat under the feet of Gamaliel, and we have an account of Gamaliel talking about Paul as a student. And as he spoke of Paul as a student, he said the biggest trouble I had with him as a student was supplying him with enough books. An avid reader, that is why when Paul was making his defense before King Agrippa, Festus cried out,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Paul had been there

reading for two solid years in prison in Caesarea, and every time he saw him, Paul was buried in a book. And he said, hey, you studied too much, you flipped. You went one over the edge.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탐독가 였는데 특별히 ‘가말리엘’문하생 중의 한 사람 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자기의 학생이었던 바울에 관해 말한 내용을 보면, 그는 바울이 읽고자 하는 책들을 공급하느라 큰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바울이 탐독가였으므로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때에, 이를 보고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베스도의 눈에는 그가 늘 책에 파묻혀 사는 것과 책 읽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한 말은 “이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해서 돌아버렸어, 한 눈금 넘어섰어. 너무 많이 배운 게 결국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So bring me the books, bring me the parch, especially those parchments, you know. You know I think that that’s something about a teacher that you have a thirst and you’ll never stop.

그래서 바울은 “네가 알다시피, 책은 특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아시다시피, 선생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갈급하고 책 읽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Alexander the coppersmith did me much evil: the Lord reward him according to his works Of whom be thou wary also watch out for that Alexander the coppersmith (4: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4:14):

That’s interesting, isn’t it? Pray for those, the Lord said, who despitefully use you. but I don’t know that He intended you to pray that way.

그거 참 재미있군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악한 마음으로 악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or he has greatly withstood our words. Now at my first hearing no man stood with me, but all men forsook me: I pray that God will not lay that to their charge (4:15-16).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4:15-16).

Interesting, Paul was totally forsaken by all of his friends. At his first hearing before Nero, they all left him. When Paul, one of his first exposures to Christianity was the stoning of Stephen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The first time we find Paul, he is standing there holding the coats of the men who were stoning Stephen to death. He just heard Stephen’s tremendous witness before the Sanhedrin, of which he was a member. They voted, Stone him. Paul voted, Yes, stone him, you know, he voted consenting to his death. He voted with them to stone him and then he participated by holding the coats of the men who did the actual stoning of Stephen.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네로 앞에서의 그의 첫번째 심문 때도, 그의 곁에 있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울이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것은 그가 스테반을 돌로 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바울을 보게된 것은 스테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느라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공회원으로 스테반이 공회 앞에서 하는 대단히 훌륭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의하고 스테반을 도로 쳤으며 바울 역시 그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기로 결의하고 스테반에게 실제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 줌으로써 가담했습니다.

While Stephen was being stoned, you remember that he looked up and he said, Father,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Don't charge them with this one. That evidently made a pretty heavy impression upon Paul. Because later when the Lord got hold of Paul on his way to Damascus, hey, it's been hard to kick against the pricks, you know, I'm sure that that whole thing with Stephen was still in his mind and on his heart. Seeing this guy die in such a way as, Lord,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Don't charge them with this sin, Lord. Rather than cursing and screaming and all at, those who were, you know, stoning him, this beautiful attitude of love and forgiveness.

스테반이 돌에 맞는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신것을 아실겁니다. 스테반에 관한 많은 기억들이 바울의 마음과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를 하기는커녕, “주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태도로 죽음을 맞는 이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Now Paul is more or less emulating that as he talks about these fellows who forsook him. Lord, I hope that the Lord doesn't charge them with that one. And this I love. All of the men forsook me but nevertheless,

바울은 자기를 버린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면서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Notwithstanding the Lord stood with me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4:17),

And that's all I need. The Lord stood with me.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and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4:17).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4:17).

Or Nero. He calls him the lion. Or perhaps he could be referring to, you know, being put in the arena with the lions, but I just thought that he's referring, it was cryptic for Nero.

여기서 사자란 네로 황제를 일컫는 말이거나 혹은 그가 갇혔던 원형 경기장의 그 사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언급한 이 말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로 생각됩니다.

Now notice this, "Notwithstanding,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You see what happened is that when Paul stood before Nero; he just took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to Nero. I mean, what a great opportunity. I've got to make my defense before this guy and so, but that was Paul's tactic all the way along. Whenever Paul was arrested and had to appear before the judges, or later before King Agrippa, he always used that opportunity to witness and try to win them to Jesus Chr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한 이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는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내가 이 사람앞에 선다면 변호해야할 준비를 해야겠지만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불들려서 재판관 앞에 서야했거나 또는 후에 아그립바 왕앞에 서야했을 때에는 언제나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No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re going to be persecuted and they're going to arrest you and they're going to take you before the magistrates, and you're going to stand before kings. But don't take any forethought what you're going to say, for in that hour the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that you should say and it will turn to you as an opportunity to testify.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하시니라.”

In other words, you're going to be, you know, arrested, brought to court and all, hey, don'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testify, to share your faith. And so Paul took every appearance before the judges and all as the opportunity to testify until he was laying such a heavy witness on Agrippa, King Agrippa. He said, Agrippa,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I know you believe the scriptures. Agrippa said, Wait a minute. Hold on here. You mean you're trying to convert me? And Paul said, Oh, I wish I could. He really was. He was trying to convert him.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혹시 불들려서 법정에서 끌려가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립바왕에게 중대한 증거를 할때까지 재판장 앞에 나타날때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왕에게 “아그립바 왕이여, 성경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잠깐만,

네가 지금 나를 개종 시키려 하느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왕을 개종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Now Paul doesn't nor does Luke give us an account of what Paul said to Nero, but you can be sure he laid on Nero one of the, he no doubt figured, boy, if I could win this guy to Christ, think of what good it would do for Christianity, if Nero could be won to Christ. And I'm sure he laid on this guy a testimony like you can't believe. And he said, they all forsook me but “the Lord stood with me”.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in that hour. And He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I mean, he laid the full witness on him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The whole court of Nero heard the Gospel.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무엇이든 변론했는지에 관해 바울이나 누가나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로 황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수만 있다면 그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했음으로 그가 네로 황제에게 증거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네로 황제에게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중대한 증거를 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모두가 다 그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가 나를 강건케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하심이라.” 네로의 법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8 절을 봅시다.

And the Lord shall deliver me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4:18)

Oh yes, He sure did. His head was whacked off and he escaped from Nero. Because Jesus said, “Don't fear them that have the power to kill the body, but after that have no more power: but rather fear him who after the body is killed is able to cast your spirit into hell” (Matthew 10:28).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네로 앞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28).

Yeah, I tell you, fear ye him. So I'm going to be delivered, Paul says. I know God's going to deliver me. And Paul knew exactly how because he sai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2 Timothy 4:6). I'm going. The Lord is going to deliver me. I think it is wrong when we think that deliverance only comes through healing. God has many ways of delivering us. “And the Lord shall deliver me”

그렇다, 내가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 말라. 나는 건짐을 받게되리라. 바울은 “주께서 나를 건져 내시리라” 는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디모데후서 4:6) 라고 말한것을 보면 그는 어떻게 될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간다.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오직 치유를 통해서만 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from every evil work, and will preserve me unto his heavenly kingdom
(4:18):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하시리니 (4:18):

The world might take my life away but man, I'm going to be preserved in the heavenly kingdom.

세상은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나를 천국에 들어 가도록 구원하실것입니다.
계속해서 19 절 상반절까지,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Salute Prisca and Aquila
(4:18-19),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4:18-19),

Now here they are again, still in Ephesus, and Paul is so bound to Priscilla and Aquila. Met them first in Corinth. And then they went with him or they went before him to Ephesus. And they were with him in his ministry there and a couple of people that I am anxious to meet, Priscilla and Aquila. Salute them, greet them.

이제 다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아직 에베소에 있으며 바울과 그들은 깊은 인연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그들과 만났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내가 꼭 만나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싶은 두어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입니다.

19 절 하반절,

and also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4:19).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라 (4:19).

Now it is thought that maybe he was killed also in Rome. He looked Paul up, sought for him diligently, found him in a dungeon but it is thought that maybe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Paul, he was slain because he doesn't greet him but only his household. And there are some accounts that he was actually killed because of his relationship to Paul.

아마 오네시보로도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바울을 존경했고 그를 열심히 찾다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게는 안부를 전하지 않고 그의 집의 안부만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바울과의 관계로 인해 그가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20 절, 21 절 말씀,

Erastus stayed at Corinth: but Trophimus have I left at Miletum [which is Malta] and he was sick. Now do your diligence to come before winter. And Eubulus greets you, and Pudens, and Linus, and Claudia and all the brethren (4:20-21),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4:20-21),

Now, with Pudens and Claudia, couple of interesting names. Oh, I don't have time to go into the story but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behind Claudia who is thought to have been a princess from the British Isles. And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in the early church

concerning this Claudia. And it's, that she is the same Claudia of course, is not known. But in the early church in Rome, there was a Claudia that had become converted. She was a princess from Britain and had been sent to Mary, one of the Roman leaders, as a part of the treaty and all and was converted to Christ there in Rome and became a very powerful figure in the church.

여기 부데와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십시오. 사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시간이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클라우디아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한 섬에서 온 공주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같은 클라우디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에서 개종한 클라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공주였고 협정에 의해 로마의 지도자중 한 사람인 메리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후에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y spirit. Grace be with you. Amen (4:22).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4:22).

So Paul's last letter to Timothy and the last letter that he wrote.

May the Lord richly bless you as the Word of God is now assimilated into your life and you begin to apply it in your daily experiences, that the Word of God might have a purifying effect upon your life this week. Even as Jesus said,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that I have spoken unto you" (John 15:3). May you find the Word of God guiding you in the way of righteousness, being profitable to you in leading you in that path of righteousness, that God would have you to run.

이것이 바울의 생전에 디모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며 그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 지게 하시고 날마다의 체험 속에서 적용되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 장 3 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간동안에 특별히 말씀이신 하나님의 순전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인도하심을 따라 유익함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strengthen you in the various tests and trials that you'll be facing this week, and cause you to be victorious,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움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